

第225回國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2日(金)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2년도예산안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국정홍보처소관
2.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 다. 청소년육성기금

審査된案件

1. 2002년도예산안
 - 가. 문화관광부소관 1
 - 나. 국정홍보처소관 1
2.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1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1
 - 다. 청소년육성기금 1

(10시15분 개의)

○ **委員長 崔在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까.

○ **立法調査官 李秀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상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입니다. 따라서 여야간사와 협의결과 예산안 심사 대상기관이 4개 기관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문화관광부 및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 심사와 문

화관광부 소관 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를 차례로 듣고 5일에는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방송위원회 소관 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를 듣고 6일에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 7일에 위원회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국정홍보처소관
2.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 다. 청소년육성기금

(10시19분)

○ **委員長 崔在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도예산안 문화관광부소관과 국정홍보처소관, 의사 일정 제2항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간사와 협의 결과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문화관광부소관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01년도 문화관광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2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문화관광부장관 南宮鎮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崔在昇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문화관광부소관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함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중인 지난 9월 19일 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부에 대한 확인감사가 열린던 9월 28일에 세계관광기구 총회 개막식 참석차 일본 오사카로 부득이 출국한 관계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하고 오늘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주실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지도 편달이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배워가면서 일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 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 및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국립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박물관과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시대에 맞게 디지털도서관 건립과 사이버 한글박물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프트웨어 부문의 보강에 역점을 두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과 박물관 미술관의 유물 및 작품 구입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의 기능강화와 초·중·고 국악강사 풀체 확대 실시 및 연극강사 풀체 실시로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등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다양하고 엄선된 축제와 공연 그리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10개 개최도시에서도 개성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특히 내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산업 창작기반조성,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년차로 접어든 남해안관광벨트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지원 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명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40억 아시아인의 잔치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03년도에 열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미국 뉴욕에서의 테러와 그 이후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생화학테러위협으로부터 관광산업의 위축을 막고 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대 테러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쉼터인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2억 9400만 원으로서 금년의 120억 6900만 원보다 4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493억 8800만 원과 특별회계 67억 2900만 원 등 합계 1조 561억 1700만 원으로 2001년 9705억 7900만 원보다 8.8% 늘어난 85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소관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는 종무지원에 142억 원, 문화정책에 939억 8300만 원, 예술진흥에 837억 3200만 원, 문화산업에 1895억 7300만 원, 관광진흥에 2131억 7200만 원, 체육진흥에 1285억 7400만 원, 청소년육성에 241억 3500만 원, 기관운영 등에 265억 3400만 원, 문화예술기관에 2598억 4800만 원, 타회계 전출금에 156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2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계상된 156억 3700만 원 등을 제외한 39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우리 부 소관 공공기금인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9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된 공공기금으로서 2000년말 현재 1145억 2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말에는 1530억 9100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2002년도에는 국고출연금 및 운용수입 등에 따른 순조성액이 235억 1500만 원으로 2002년도말에는 조성누계액이 1766억 600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002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규모는 810억 4600만 원으로서 2001년도 965억 8600만 원에 비해 15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내역으로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등 문화상품 개발사업에 280억 원, 문화산업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270억 원 등 550억 원을 용자지원하고 문화산업투자조합에 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28억 1000만 원, 게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3억 8200만 원을 사용하며 여유자금으로 15억

8500만 원을 예탁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금으로서 2000년말 현재 4243억 3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말에는 4987억 97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법정부담금과 운용수입 등에 따른 순조성액이 1361억 2900만 원으로 2002년도말 조성누계액은 총 6349억 2600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2252억 7900만 원으로 올해 운용규모 2326억 6600만 원에 비해서는 73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광시설 등에 대한 용자는 증가한 반면 여유자금 운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사업내역으로는 민간의 관광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시설의 건설, 개보수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1908억 3600만 원을 용자 지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지원사업에 100억 7200만 원, 관광연구기관 지원에 17억 300만 원, 여유자금으로 226억 1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금으로서 2000년말 현재 1591억 2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말에는 1947억 14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따른 순조성액이 371억 2100만 원으로 2002년도말 조성누계액은 2318억 3500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71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664억 8300만 원에 비해 4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육성사업 지원과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사업내역으로는 청소년전교육성사업 지원에 83억 8100만 원,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용자사업에 12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502억 5700만 원을 예탁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崔在昇**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비록 정부안이지만 2002년도 문화예산이 정부예산의 1.06%에 이름으로써 2000년, 2001년에 이어 3년 연속 정부예산 대비 1%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부 전직원은 '문화시대 문화한국' 실현을 위한 우리 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과 아울러 깊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문화복지국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2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산하단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尹迥奎 차관입니다.

李弘錫 차관보입니다.

吳志哲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朴紋奭 중무실장입니다.

尹淸夏 문화정책국장입니다.

金長實 예술국장입니다.

劉震龍 문화산업국장입니다.

朴良雨 관광국장은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오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鄭泰煥 체육국장입니다.

金斗顯 청소년국장입니다.

(간부인사)

李康淑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입니다.

池健吉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南基心 국립국어연구원장입니다.

申鉉澤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金明坤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吳光洙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李鐘哲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吳鉉宰 예술원사무국장입니다.

趙洪奎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李文遠 독립기념관장입니다.

柳吉村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金順珪 예술의전당 사장입니다.

尹亮重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李吉隆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金聖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金鳳燮 대한체육회사무총장입니다.

오늘 尹美容 국립국악원장은 해외공무 출장관계로, 李成元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

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속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우리 부 예산안 개요는 기획관리실장이, 공공기금은 관계국장이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부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총론부분은 보고를 드리셨기 때문에 13쪽부터 시작되는 1조500억 규모의 2002년도 문화관광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 감액된 사업, 기타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을 위해서 금년보다 약 10억이 증액된 31억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 유도연수원 건립지원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3개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10억이 마지막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7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 약 1700년이 넘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조계사 경내에 약 5000평 정도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예산이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과 정비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렇습니다.

이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등록이 된 전국의 860여 개 사찰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주는 것이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

화재로 되어 있는 사찰의 경우입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니까 전통사찰 중에는 문화재 인 사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鄭柄國 委員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유지비 자체도 1000억 넘는 예산의 한 70%가 불교 쪽 위주로 문화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구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차별화가 돼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중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部宗務室長 朴紋奭 중무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보수예산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의 당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지원을 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은 문화재인 사찰도 있고 문화재가 아닌 사찰도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는 우선하지 않고 문화재가 아닌 사찰 자체의 시설로 대웅전이랄지 법당, 요사채, 공익편익 시설에 대한 노후 퇴락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과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은 그 용도와 기능이 나름대로 명확하게 분리돼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가 지금 중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지원하는 형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文化觀光部宗務室長 朴紋奭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문화재청과 중무실의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이 용도와 기능이 명확히 구분돼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그것을 정

비하는 데는 경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 내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주변 정비 작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나 집행하는 원칙, 기준을 세워서 전통사찰을 관리해 주고 유지 보수해 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그것을 빌미로 이런 식으로 주변 정비 사업에 쓰이지 못하게끔 하고 문화재청의 보수비는 보수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기획된 대로 목적인 바대로 제대로 달성 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잖아요.

예산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관리해 본 적 있어요? 사후보고 받는다는 것이 전부다 서류상으로만 보고 받지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宗務室長 朴紋奭 제가 중무실장으로 부임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밖에 안 돼서 현장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나가봤습니다.

오늘 질의 전에 국정감사때 鄭柄國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고 받았습시다. 오늘 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적된 부분이 예산집행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것을 사전에 협의,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다음 내년도 감사 전까지 예산집행하고 현장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文化觀光部宗務室長 朴紋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 종교문화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선·포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이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금년보다 3억이 증액된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로 耆老宴 재현도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조선시대 耆老, 당시는 60세가 넘는 분을 노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마는 이 전통연회를 재현해서 신세대들에게 윤리도덕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문화 보존행사입니다.

다음 16쪽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82억보다 약 30억이 감액된 455억의 예산으로 15관의 공공도서관, 27관의 공립박물관, 31관의 지방문예회관에 대한 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 집 경우는 금년도 30억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당국 입장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 그래서 내년도 첫해에 예산을 3분의 1 줄이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20억으로 감액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서관입비가 금년도 약 50억에서 내년도에는 74억 5000으로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진국의 국민 1인당 장서 수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시설 내 장애인시설 설치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50%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 운영지원을 위해서도 금년도보다 약 10억 증액된 9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쪽의 문예진흥기금의 경우는 내년부터 각 공연장으로부터의 모금이 폐지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국고에서 출연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내년에 200억 원을 국고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4500억 원의 조성목표에 달할 때까지 국고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21세기 세종계획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이버 한글박물관 건립은 2005년 목표로 2억 8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온라인등록시스템 개발사업과 그다음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예산이 금년도보다 2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복사권 집중관리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금년도보다 2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당국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일환으로 점점 줄여나가겠다 해서 내년에 3억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8쪽의 문화예술의 창작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문학, 미술, 공연예술의 창작 활성화 예산이 110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금년 3월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0억이 100억 목표로 조성 추진중인

기금에 출연이 되고 플러스 사업비로 10억이 추가 편성돼서 모두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이 처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50%가 증액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국악강사 풀제도 금년에 10억에서 50%가 증액된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연극강사 풀제도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내년도 월드컵을 축하하는 행사기간 중에 우리 문화예술 수준을 널리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월드컵 문화행사 지원비가 금년 5억에서 내년도에 142억원 규모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각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는 10개 작품에 약 52억 원을 지원하고 10개 월드컵 개최도시에 100억 원을 지원해서 서로 중복 낭비성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문화학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통문화 인프라조성 지원비가 금년 81억에서 약 50억이 감액된 32억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주의 한옥마을을 전통문화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금년도 44억 지원으로 모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부분의 예산은 거의 감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그것은 완료가 되어서 빠진 것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런데 원래 예산을 왜 그렇게 초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초과가 아니고 금년에 44억이 포함이 되어서 81억이고요. 내년에는 그 44억이 몽땅 빠지기 때문에 32억으로 해서 크게 지금 줄어든 부분은 없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에 저희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별히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해외문화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약 6억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동경과 파리의 우리 문화원을 신축 내지 이전하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이 굉장한 문제로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에서 Korea Month를 해서 5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라는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역시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Korea Month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5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라는 거의 매년 500억씩 들어오다가 내년에는 400억으로 100억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콘텐츠 진흥부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00억이 줄었습니다라는 2003년까지 2500억은 국고로 계속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지원센터 예산이 금년과 같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것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지난 8월에 설립이 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보다 50%가 증액된 150억 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전국의 중앙에만 이런 산업지원센터를 둘 것이 아니라 각 지방별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두고 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지역별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어디에 둔 것이예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이것은 저희가 각 16개 시·도에서 적어도 하나씩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라는 작년엔 3개소, 금년에 5개소, 그 다음에 내년에도 3개소를 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전부 각 16개 시·도의 한 군데씩 지방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지방비가 이것이 또 매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사를 나가 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이미 지방에 조성된 지

역이 어디어디예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지금 조성이 아직 완료된 곳은 없고요.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한 지역의 심사는 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래서 지금 확정된 도시는…….

○姜申星一 委員 확정된 곳이 어디인지…….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는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세 곳이었고 금년도에는 부천, 대구, 청주, 춘천, 전주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도 저희가 지금 경주, 제주 등 3개 지역을 지금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시·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러니까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전부 들어가고 광역시가 아닌 도에서는 그 도가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신청자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지방자치단체…….

○姜申星一 委員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렇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알았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 다음에 출판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우수학술도서 선정 구입비가 23억으로 규모는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라는 다만 지원방법이 금년까지는 출판사에다가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되면 그 제작비를 바로 지원했습니다라는 금년에는 책을 아예 한 400종 정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책 종류마다 한 100권씩 사가지고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방법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지금 파주에 민자로 건립중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출판계에서 아시아지역의 출판문화 정보의 요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 건립 건의를 수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에 25억을 출연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건축비 170억 원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DOI 이것은 우리가 보통 종이출판에는 ISBN이라고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디지털 저장고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도 확실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20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금고가 지난 94년에 설립이 되어서 초기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약 15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400억이 국고출연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억이 감액된 300억 수준으로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1500억 원 모두가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100억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 내년부터 모금이 폐지되는데 따라서 대체사업 즉 그동안에 국고에서 지원해야 마땅한 사업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당국과 협의한 끝에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자료원에 약 70억 원을 신규로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진흥금고에는 그 동안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하던 것이 국고로 되기 때문에 국고출연을 100억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작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작년도에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姜申星一 委員 이 관계는 누가 압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한 12, 1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아니, 부산 쪽에서는 지금 그 다음부터는 10억으로 쪽 고정이 됐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고정이 된 것입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그쪽에서 그 이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 쪽이 상당히 자립도가 높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제행사로서 우리 영상관계로서는 제일 지금 보면 알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로서는 제일 지금 보면 국제적인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제라는 것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영화제라는 것이 곳곳마다 많이 생겨나고 행사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데서는 더 책임 있게 알차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 부분에 게임·음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서 게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금년보다 10억이 감액되어서 20억만 편성된 이유는 게임종합지원센터도 이제 재정자립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지원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예산당국의 방침에 의해서 10억이 감액됐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산업으로 게임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7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아카데미는 18명의 소수정예만을 현재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지방에 있는 그런 게임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들도 게임원격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을 예산당국에서 인정을 해서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이미 있는 사이버대학에 위탁을 해서 원격교육시스템을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鄭柄國 委員 교육대상, 교육 요구되는 인력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지금 전국에서 게임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장래전망이 높고 또 국제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그런 학생들조차도 게임에 대한 교육을 사이버 상에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그것에 응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잡은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전체적인 규모 말씀이십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產業局長 劉震龍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는 각 대학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3000명 이상 지금 요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2005년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이 교육 이후의 결과 이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文化觀光部文化產業局長 劉震龍 그것은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했을 때…….

○鄭柄國 委員 사이버교육을 할 때에 등록을 받고 합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產業局長 劉震龍 예,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등록을 받고 해요?

○文化觀光部文化產業局長 劉震龍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학위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부터는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산업 육성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개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특기할만한 것은 아리랑텔레비전 해외 위성 방송망이 내년도도 4기 위성을 임차를 해서

미국까지 포함하는 본격적인 우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문화상품도 널리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상품 개발부분은 78억에서 약 25억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사동에 있는 한국공예진흥원에 대한 시설임차료 부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문화상품 개발부분이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다 시설임차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빠진 만큼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콘텐츠 진흥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신규예산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콘텐츠산업 창작기반조성에 170억과 마케팅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187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43억 해서 모두 500억 원을 신규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한국방송산업진흥원으로 최근에 이름이 개편이 됐습니다마는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이한 사항을 하나 보고를 드리면 문화교류지원 50억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와 관련해서 우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좀 체계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또 거꾸로 그 나라의 문화도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예산을 5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문화교류지원으로 바꾸기로 예산당국과 합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鄭柄國 委員 문화콘텐츠진흥예산하고 게임·음반산업육성예산, 영상산업육성예산 이것이 다 문화콘텐츠나 마찬가지로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문화상품개발비나 전부 다 문화콘텐츠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래서 주로 앞부분에 있는 게임에 관한 것이 이 문화콘텐츠진흥에는 거의 게임이 아닌 부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다만 게임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워낙 게임아카데미가 18명의 소수정예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鄭柄國 委員 아니, 문화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유기적이지 않게 이렇게 편

성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콘텐츠진흥사업비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중삼중으로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받는 사람만 받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진흥예산이 예산편성단계 후반부에 이것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좀 됐다는 말씀을…….

○鄭柄國 委員 종합되지 않은 거예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초기에 종합해서 같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편성 심의한 후반부에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敬大 委員 실장, 그 부분은 좀 솔직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쪼개놓아야 돈을 받아올 것이 아닙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예산 확보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쓸 때에는 유기적으로 모아서…….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玄敬大 委員 그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쓸 때에는 종합적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문화산업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 의 지원금하고의 구분이, 나도 서지 않아서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내가 직접 가봤어요. 직접 가 봐가지고, 하고 있는 구분을 스스로 찾으려고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姜申星一 委員 가보세요. 가 보시면 조금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고 우리 鄭柄國 위원께서 지적

하듯이 지금 이렇게 유인물로 볼 때는 이것이 구분이 잘 안 선다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어느 정도 본 질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질의에 들어갔을 때 한번 남겨놓고 질의를 우리가 잘해 보도록 하지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보면 금년 새로 오신 南宮鎭 장관이 한 제안설명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주요 역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주거나 받거나 할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도 금년보다 약 70억이 증액된 500억 규모로 편성되었고 유교문화권관광개발도 금년보다 약 80억 원이 증액된 30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육성개발과 관련해서도 금년보다 약 100억이 증액된 6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개 관광지개발사업에 327억, 50여개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97억, 7대문화관광권개발 24개 사업에 171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도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약 330억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항면세점이 과거에는 관광공사가 독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영화가 전부 되면서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이나타운 시범거리조성,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10억이 새로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교류증진과 관련해서는 제주관광종합센터에 대한 마지막 지원금 180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정상외 집은 신규사업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열세 분의 정상들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전시를 통해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국고 30억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국방문의 해의 사업도 이것은 일단 금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방문의 해를 내년도도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는 보고를 참고로 드립니다.

주요 국제관광행사 개최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다만 세계음식박람회가 내년도 월드컵의 기회에 한국조리사중앙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하는 이 사업에 6억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내년도에도 353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는 금년에 3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54억 원을 지원해서 경기장시설 개·보수에 149억,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에 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물론 대회가 열리는 2003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 금년보다 약 18억이 증액된 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금년 65억에서 약 45억이 증액된 110억이 증액이 되어서 전국의 약 22개소에 한 개소당 5억 규모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생활체육지도자를 시·군·구에 3 내지 5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고 지난 예산편성 때도 지적을 당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시·군·구 당 1명도 배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3~5명을 배치한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體育局長 鄭泰煥 지금까지 76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시·군·구 별로 평균 몇 명이 된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體育局長 鄭泰煥 그렇게 되면 3 내지 5명 정도되는데 일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지금 현재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鄭範九 委員 의사진행말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보고를 받고 세부사

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충실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고 때는 자료요구에 국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것, 물론 숫자 같은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책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책질의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柄國 委員 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세요.

○委員長 崔在昇 계속하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의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이 금년 127억에서 내년에 74억으로 약 50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충남체전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가 금년 49억에서 내년 35억으로 14억이 줄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개최한 지역에 대한 운영비는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감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한 것은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금년 5억에서 내년에 12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포츠용품도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뜻에서 10억이 신규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종목 꿈나무 육성도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에서 5억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玄敬大 委員 위원장님,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말씀하세요.

○玄敬大 委員 체육기반시설 확충에서 전국체전 시설 50억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열릴 전국체전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玄敬大 委員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玄敬大 委員 내년에 전국체전을 어디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제주도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玄敬大 委員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난 그 무렵에 확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玄敬大 委員 그러면 10월에…….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玄敬大 委員 내년 체전 장소를 그 전년 10월에 결정합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매우 잘못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내년이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오다가 그래도 6·25전쟁 때도 전국체전을 했는데 아무리 그런 국제대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체전을 건너뛸 수 있느냐, 그래서 전국 시·도에 중용한 결과 제주도에 먼저 호응을 해왔기 때문에 제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玄敬大 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내년에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안할 생각이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도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玄敬大 委員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2~3년 전에는 정부가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1년 앞두고 전국체전을 주최할 도를 결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 가지고 체전을 원만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년 체전을 제주도에서 치른다고 하면 기존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신속한 뒷받침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玄敬大 委員 정부도 없고 제주도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개최한다고 전제하고 필요한 예산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玄敬大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

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이부분은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玄敬大 委員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데 위원장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文化觀光部次官補 李弘錫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도에 가서 그 문제를 협의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을 왜 갑자기 결정했느냐는 문제는 정부나 대한체육회도 5월의 월드컵대회와 10월의 아시아경기대회를 두고 보통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玄敬大 委員 원래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觀光部次官補 李弘錫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국체전을 안 하기로 되어 있다면 많은 선수들이 제주에 방문하고 관광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해 보겠다고 의지표명을 해서 제주도로 지난 전국체전 끝나자마자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비 3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개보수비 문제는 일단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玄敬大 委員 운영비 30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文化觀光部次官補 李弘錫 3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玄敬大 委員 내년에 전국체전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觀光部次官補 李弘錫 그렇습니다.

막판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운영비라도 일단 확보해 달라고 해서 35억을 확보했고 개보수비 문제는 어제도 협의해본 결과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300~400억 정도가 들겠다고 해서 제주도에다 개최하지 마시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데에 분산 개최해서 최대한 제주도에서 경비부담을 줄이고 하되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확보문제를 문화관광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협의해서 증액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玄敬大 委員 신속하게 제주도와 협의해서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체전 끝나자마자 갑자기 결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계속 보고하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비가 금년 4억에서 100%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캠프용 통나무집 건립비를 예산처가 승인한 결과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울에만 있던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를 16개 시·도에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약 10억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의 운영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원 사무국 예산이 66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2004년에 예술원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예술원 50년사 집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이 금년보다 약 25억이 증액된 데에는 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건립비가 내년에 50억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박물관 유물구입비가 금년에 30억에서 내년에 50억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춘천박물관이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마는 개관 전시준비를 위해서 약 19억의 예산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도 작품구입비가 금년보다 100% 증액된 44억이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에 남도국악원 건립비가 금년 31억에서 내년에 113억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이 개관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건립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도 유물구입비가 그동안에 기본사업비에서 조금씩 구입을 했습

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유물구입비라는 항목이 신설되어서 13억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물관건립기획단의 경우도 748억의 예산이 연부액으로 내년도에도 지원되도록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금년 30억에서 내년 28억으로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극장에 대한 특별회계사업은 금년도 145억에서 내년도 163억으로 다소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문화관광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尹鐵相 委員 자료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말씀하세요.

○尹鐵相 委員 23쪽 5-3 관광자원 육성 개발비가 695억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렇습니다.

○尹鐵相 委員 관광지 개발 51개 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 50개 사업, 7대 문화관광권 개발 24개 사업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자료로 주시고 나랑 문화관광축제 개발 육성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26쪽에 6-3 지방체육기반시설 확충 지원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바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沈揆結 委員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尹鐵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자체수익의 감소로 인한 수입 부족분을 작년과 똑같이 33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인청공항으로 옮긴 이후의 수입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알겠습니다.

○沈揆結 委員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시범거리가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인천시 선린동으로 옛날 화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게 됩니다.

○沈揆結 委員 알겠습니다.

○高興吉 委員 여기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결정액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문화관광부가 기

회예산처에 요구했던 액수도 참고로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보고에 대해서 먼저 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문화산업국장입니다.

2002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99년 2월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해서……

○鄭柄國 委員 가능하면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은 정부출연금인 400억이고 융자금회수 134억, 예탁금회수 197억, 이자수입 80억 원 등 총 810억 원입니다.

그다음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은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저리융자를 280억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에 대한 융자가 270억 원이고, 저희가 투자조합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출자를 200억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임종합지원센터, 문화콘텐츠진흥원 쪽에 대한 경상지원사업이 44억 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의 일부를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융자금 회수율이 지금 나오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융자가 한창 나가는 중이고요.

○鄭柄國 委員 들어온 것은 없어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들어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보시면 융자금회수가 134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鄭柄國 委員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대출기간이 보

통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짧은 것은 3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짧은 것은 이미 상환된 것도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래서 100% 다 회수됩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지금 떼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대체로 영세업자들이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다 중소기업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한 단위로 볼 때 융자규모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개 5억 내외가 제일 많고 큰 데는 10억 20억을 가져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인 경우에는 담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姜申星一 委員 5억 이내도 담보용자인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렇습니다. 담보는 다 제공을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자율을 시중금리의 절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시중금리의 절반 같으면 연간……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7%가 시중금리라면 저희가 3.5%에서 4.5%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姜申星一 委員 기금에서 해준다면 앞으로 더 저리로 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융자보다는 투자 쪽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사실 그래야지요. 투자해 주어야 돼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투자를 굉장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물건을 담보로 해서 융자한다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데는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금년 말까지 1849억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2329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순조성액은 1766억 원인데 문화산업지원사업하고 투자조합출자금을 제외한 돈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사용액에 보시면 문화산업지원금하고 투자조합출자금하고 318억 원과 맨 밑에 순조성액을 더한 금액이 총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조성액 안에는 융자금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은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물 등 수출전략 문화상품 개발 및 첨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융자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로덕션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을 가지고 투자 용자를 해주고 있고 프리 프로덕션하고 포스트 프로덕션 부분은 저희가 국고를 가지고 순수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로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융자사업 대상업체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음반 등 문화상품 개발업체들이 되고 융자조건은 상품개발의 연 3.5% 3년 상환, 시설·장비 부문은 연 4.5% 5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조합 출자는 우리 부에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창투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창투사가 출자금을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수입 부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융자원금회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250억이 감액되어서 3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를 드리면, 보통 융자원금회수는 정기상환분만 일단 반영을 하고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빠져 342억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들어가면 기한 전 상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법정부담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

지노사업자납부금이고 다음에 국외여행자납부금입니다. 이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470억이 증액된 117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외국인 전용카지노뿐만 아니라 특히 강원랜드에서 내년에 450억 정도 납부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300억 정도로 금년보다 10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예치금회수는 약 430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수입이 225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 **沈揆結 委員**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앞으로 기금 정리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외여행자납부금 등으로 일부가 충당되고 있는데 앞으로 준조세 성격이 있는 기금을 정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지난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는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계속 존치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납부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쨌든 관광진흥을 위해서 쓰이는 큰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姜申星一 委員**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카지노사업자납부금하고 국외여행자납부금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카지노사업자가 1170억 중에 732억 정도이고 국외여행자납부금이 약 43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姜申星一 委員** 알겠습니다.

○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등의 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로 호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약 1900억을 용자하고 관광연구원과 같은 관광연구기관에 17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0억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이 금년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226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 **鄭範九 委員** 외래관광객 유치지원이라는 게 예

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4쪽에서 간단히 자료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규모를 맞추어서 2252억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이 내년엔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는 조성목표액이 498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2001년도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법정부담금이 크게 늘기 때문에 조성액이 634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설이나 개보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의 경우도 관광사업을 하는 쪽에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월드컵 개최 이전에 즉 상반기에 융자사업비의 60% 정도를 앞당겨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문화해설사 양성사업이라든가 관광지 표지판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 건설에 대한 용자에 약 870억, 관광시설보수에 약 500억 원, 국제회의시설이라든가 휴양업종과 같은 국민관광진흥사업 쪽에 약 335억 원 합해서 17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체 여기에는 일반 여행업이라든가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업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196억 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광연구기관에 17억 그다음에 외래관광객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2002년도에는 약

19개 사업에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가 관광사업자단체 육성지원비, 전통문화 재현행사비, 관광통역안내원 운영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문화해설사가 무엇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문화해설사는 전국의 관광지 특히 문화유적지의 표지설명판만 봐서는 이해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鄭柄國 委員 그러니까 안내원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상당한 수준을 갖춘 안내원입니다.

○鄭柄國 委員 자격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험도 치고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약 500명 정도가 전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관광시설건설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은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아니면 예산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상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금년부터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렇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러니까 내년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있고 월드컵을 앞두고 특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간 늘려 잡은 것입니다. 곧 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다음 기금융자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10억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는 1900억 정도를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융자조건은 금년도 9월에 저희가 업체의 요구를 감안해서 재정경제부와 합의한 끝에 그동안 6%로 대출금리를 정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융자시기 및 한도는 연중 2회에

걸쳐서 용자를 하고 있고 건설·개보수의 경우는 비용의 60% 정도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용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자비율을 70% 정도로 확대할 방침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외화획득액의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용자의 경우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독점해서 하고 있고 운영자금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청소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青少年局長 金斗顯 청소년국장입니다.

200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710억 1200만 원으로서 수입의 내용은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340억 원, 용자회수금 34억 8600만 원, 예탁금회수금 220억 원, 이자수입 등 115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에 83억 81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용자에 123억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에 502억 5700만 원, 기금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성액은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에 340억 원, 이자수입에서 115억 2600만 원으로서 총 조성액이 45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육성사업비로서 83억 8100만 원을 사용하고 기금관리비로서 2400만 원을 합하여 8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순조성액은 371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2002년 연말에는 2318억 3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의 목표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필요한 시책사업,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용자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수익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청소년교류의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으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 저리 용자지원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쪽의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전체적으로 청소년육성사업에 62억 9100만 원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정책 의견수렴이라든가 청소년의 달 행사,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등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31억 32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양성사업에 1억 7000만 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사업에 4억 89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사업에 13억 2400만 원, 수련활동지원사업에 8억 8800만 원, 청소년교류사업에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사업은 총 144억 4000만 원으로서 청소년시설 용자에 123억 5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20억 9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100억 원을 예탁하고, 금융기관에 402억 5700만 원 그리고 기금관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청소년육성기금의 용자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용자규모는 123억 5000만 원으로서 용자조건은 신규시설건립비에 10억 원 한도로, 시설보강사업비도 10억 원, 운영자금은 1억 원까지로서 이자는 6%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금융기관은 한빛은행, 조흥은행, 서울은행, 농협중앙회 등 4개 금융기관으로서 내년부터 금리인하방침에 따라서 5%로 인하 조정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 용자한 용자금 회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청소년시설 운영실태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觀光部青少年局長 金斗顯 예, 용자회수는 지금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자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용자회수시기하고 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세요.

○文化觀光部靑少年局長 金斗顯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千浩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중요사항만을 중점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지원액 7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념관 건립사업은 건축비 380억 원을 국고지원 및 자체부담으로 각각 50%씩을 부담,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고 지원예정액 190억 원 중 내년도 예산안에 7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불교계가 조계종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하여 오다가 1999년 말 26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마련하는 등 기본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건축비 380억 원 중 50%는 자체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고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동 기념관 건립을 통해 장차 불교문화종합박물관 성격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불교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호·전승 및 불교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사·우정국로·경복궁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구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사업추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건립사업은 15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었던 불교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전통문화의 전승·보존·활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총 사업비 640억 원의 30% 정도만을 국고로 지원, 불교계의 독자적인 노력을 근간으로 실현 가능하게 된 점 등이 지원사업 검토 시 고려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2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2004년도까지의 조성목표인 4500억 원 달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 출연금·민간 기부금·공연장 등의 모금·기금운용 수익 등을 통하여 조성해 왔으나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기금모금제를 조기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에 따른 기금재원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서 주로 기금운용 수익으로 문예진흥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2001년 8월 말 기준으로 3900억 원 정도의 적립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금제도의 조기 폐지와 저금리현상 등과 관련, 이들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재원부족분 보전 차원에서 국고지원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973년에 설정된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 4500억 원이 현 수준에서도 적정한가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사업 측면에서도 정부의 일반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을 높이고 소액다건적 지원형태에서 집중지원형태로의 강화가 필요하며,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쪽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월드컵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안은 모두 171억 9700만 원으로 국립기관 문화예술행사에 20억 1500만 원, 공공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에 51억 8200만 원, 10개 개최도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00억 원 등입니다.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추진하는 행사내역을 보면 국립기관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공연행사는 국립중앙극장의 '세계추향대축제' 등 2개 기관 2개 축제에 8억 6700만 원 등이며, 전시행사에 대해서는 국

립중앙박물관의 ‘한국의 풍속화 특별전’ 등 4개 기관 6개 전시에 11억 4800만 원 등입니다.

공공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는 예술의 전당 등 8개 단체 10개 공연 및 축제에 51억 8200만 원이며, 10개 개최도시 문화예술행사는 개최 도시별로 일반문화행사 66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100억 원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 국력 신장 및 국가 이미지 선양은 물론 문화월드컵을 실현함으로써 월드컵 이후 해외 문화예술 교류 토대 마련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행사는 일반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그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극대화, 행사를 계기로 한 국가 내부의 단합효과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컵 기간동안 이처럼 많은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이 거의 동시에 행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성화된 콘텐츠 기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1988년 올림픽 당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과시되었다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의 문화예술 창조역량이 중점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98년 문화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를 참고하여 물량위주의 대형 이벤트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병행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만의 자랑이 아닌 참가국들과 어우러져 즐기는 형태의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추진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준비를 통해 행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4쪽, 한국문화의 해외홍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시 등에 제기하신 재외문화원 청사 확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해외홍보활성화사업과 관련 재외문화원 중 독립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동경문화원의 독립청사 마련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파리문화원의 청사 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0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문화원의 기능이 자국문화 현지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주재국 현지인은 물론 해외동포의 모국 문화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종합

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재외문화원의 활동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재외문화원의 독립청사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원 예산안은 15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0억 원의 50%인 5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인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 지원 예산 60억 원과 신규사업인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원 예산 90억 원이 통합 반영된 것으로서 증액사유는 지방문화산업을 특화하여 단지를 조성하려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에 기인된 것입니다.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지방 거점도시에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방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 지역에 20억 원을 한도로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 부담 조건으로 2000년도에 부산·광주·대전에 그리고 금년에는 대구·부산·춘천·전주·청주 등 모두 8개 지역에 센터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문화나 지역적 입지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문화산업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획·제작·생산·유통기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문화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단지를 지정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여 지자체 별로 20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 지원조건으로 총 사업비 중 공공성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건물 및 장비 경비의 30% 범위 내에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예산 및 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원예산의 통합운영은 예산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방 특화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확산 유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지정 협의시 지방별 특화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안배 위주로 단지조성을 양산하기보다는 애니메이션·영상·만화 등 각 지역 분야별 문화산업단지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단지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사업시행주체인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쪽 DOI 체계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생략하고 또한 41쪽 영상산업 육성 예산안에 대하여도 최근 몇 년간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이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으로 5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작기반 조성으로 170억 원,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에 187억 원, 전략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143억 원 등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고품질의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및 전략 콘텐츠사업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해 2003년 문화콘텐츠 핵심 생산국 진입기반 마련과 함께 21세기 문화대국·지식경제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작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콘텐츠 유관산업간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Multi-Platform 형식의 공동제작실 구축, 운영 및 우리 문화 전반의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화로 문화콘텐츠 창작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사업은 문화콘텐츠 해외투자 로드쇼 등 전략 및 수출 지원, 디지털 문화콘텐츠 투자유치박람회 개최, 문화콘텐츠 상설마켓 조성 및 유통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이고 전략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콘텐츠 프로듀서·마켓터 등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 장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게임 특수교육과정 운영,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입니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규모가 세계시장의 1% 내외에 불과하고 외국 문화 콘텐츠 상품이 국내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원·육성은 국가적·시대적 과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은 초기 투자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독식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까지는 정부의 전략적·선택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할 및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나 관계전문가들로부터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광진흥예산안에 대하여는 54쪽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과 56쪽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으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관광자원육성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차이나타운시범거리조성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 지원에 10억 5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2억 원 규모로 시범거리 조성, 중국문화원 건립, 관광쇼핑거리 등 구역별 특화 개발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시범거리조성지원사업은 인천 국제공항 개항, 국제여행객선 운항 및 중국의 '한류열풍'에 맞추어 중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유치 촉진을 위해 중국풍 건물이 남아 있고 아직 일부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선린동 일대를 차이나타운으로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내역은 시범거리 기반시설 정비 지원으로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에 4억 5000만 원, 도로포장 및 스카й 힐 조성에 2억 5000만 원, 관광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등에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정부가 중국인 거리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줌으로써 민자 및 해외 화교자본 유치를 원활히 하고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 구축 차원에서 동 시범거리 조성 지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상외교집권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제주 서귀

포시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에 연건물 2000평, 부지 1만 337평 규모의 관광명소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건립 지원조건은 부지매입비 및 전시설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50% 정도를 국고 지원키로 하여 내년도에 처음으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세계 정상급 인사의 제주 방문 자취와 회의결과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하여 사료관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부응하여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 4월 구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한·소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10개국 13명의 세계 정상급 인사들의 연이은 제주방문으로 인해 이러한 세계 정상급 인사들의 제주 방문 자취가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상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립사업의 경우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국가간 우호증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관광목적지로서 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제주관광의 활력소와 컨벤션 유치 등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연관광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주의 지역특성을 특화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에 정상과 연관된 관광명소로 만들 경우 한국관광의 주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일본·중국 등 주변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姜申星一 委員 잠깐만요. 정상의 집이 우리나라 말은 정상의 집인데 관광객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외국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광부쪽에서 외국어로 ‘정상의 집’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문위원회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것도 아직 가칭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아직까지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정상의 집’이라고 하니깐 얼른 봐서는 저희도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Summit Meeting-house 이렇게……

○姜申星一 委員 명칭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다음 63쪽 세계음식박람회 개최 지원문제도 생략을 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예산 3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이 사업으로 관광지도로표지판을 600개 소에 3000개,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을 1800개 소에 9000개,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관광안내판을 10개 도시에 60개 설치할 목표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예산반영을 추진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해당 지자체 및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이유로 반영해 주지 않았으나 현재 해당 지자체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저조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며 관광안내표지판은 외래관광객에게 관광안내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관광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관여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관광명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편의를 제공하여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이 개최되는 해여서 외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 국내관광 불편사항 중 안내표지판의 부족 및 잘못 설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예산 미반영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가 크게 증액 반영되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의 경우 금년도 30억 100만 원의 66.6%인 1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는 13억 원이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증대 필요성 문제는 소프트웨어 확보 측면에서 지금까지 늘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의 이에 대한 반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 13억 원 신규 반영은 그 의의가 큰 것으로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최근 관람객 수에서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많은 외국인 78만 명을 포함, 연간 32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설전시장 전시물의 52%정도가 모조품 및 복제품인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유물구입비의 신규반영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물구입비의 연차적 확보와 유물전시의 정비를 통해 전통생활사박물관으로의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미술관 작품구입비가 금년도 21억 8500만 원에서 44억 2400만 원으로 100%이상 증액된 것은 문화의 세기에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되며 과거 오랜 기간 소홀히 해 온 점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증액 노력이 요망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비 증액반영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최근 우리 위원회 활동시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유물관리 소홀문제와 거액을 들여 구입한 유물중 문화재지정신청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68쪽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73쪽 이하의 공공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야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沈揆喆 委員 沈揆喆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무엇부터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南宮鎮 장관께서 부임해 오신 이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南宮鎮 장관께서 문광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9월 11일 정권교체의 과업에 백의종군할 것을 다짐하면서 金大中 총재가 집권해도 임명직 공직에는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南宮 장관께서 임명직 장관에 취임하자 정치인들의 약속은 역시 못 믿을 것이다 이런 또 한 선례를 남긴 셈이 되었습니다. 金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는 사람을 계속 기용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도 가신정치에 대한 비평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인사는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형국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임건의를 한 그런 분을 청와대 특보로 임명하고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사건으로 인해서 장관직에서 사임한 분을 다시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고 또 국정홍보처장과 청와대 공보수석을 맞바꾸고 이런 식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南宮 장관이 취임하자 문화인들 사이에서는 문광부장관 자리가 정치인들 쉬었다 가는 정류장이냐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네 번째 문화관광부장관이십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성향을 볼 때 약-강-약-강의 순서로 문광부장관이 임명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南宮 장관의 취임으로 인해서 전임 朴智元 장관과 같이 언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의 언론정책이 언론탄압정책으로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을 뜨겁게 했던 감사장 중의 하나가 언론재단이었습니다. 이른바 조폭식 언론운동을 언론재단이 지원한 셈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광부장관께서 한마디도 언급하신 바가 없는데 앞으로 언론재단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또 그러한 언론운동을 지원한 언론재단이사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게 할 작정이신지 명확한 답변이 있으

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언론재단이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방송발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물의를 빚었던 언론시민운동단체 간사연수를 위해서 오히려 2001년보다 29.7% 증액한 1236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계획도 3단계에서 여섯 강좌로 늘려 계획하고 있고 강좌 15시간 모두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렇게 물의를 빚은 언론재단이사장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본 위원은 당장 사퇴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언론개혁과 관련한 언론세무조사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은 지난 8월 8일자 신문에 못 나간 칼럼에서, 이것은 월간조선 11월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쯤 조선일보 경영진은 김대중 주필과 유근일 주간을 인사조치하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 일을 거절했다, 또 하나 내가 검찰출두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요구한 뒤 조선일보쪽에 협박이 왔다, 김 아무개가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다른 사람들을 옹아 넣겠다는 것이다’라며 당시의 정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러한 제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청와대와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께서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쓴 ‘DJ는 왜 지역갈등에서 실패했는가’라는 저서는 그동안 행해진 정권의 세무조사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사전각본에 의한 언론탄압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책의 282쪽에서 306쪽 사이의 내용중에는 익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등장합니다. ‘98년 8월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언론개혁에 대해서 좀 지켜보려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작하면 사활을 건 전쟁이 된다, 이런 이야

기가 나가면 큰 일 난다’ 또 같은 해 11월 청와대 한 수석비서관 이름으로 ‘언론이 이럴 수 없다, 중앙과 세계는 당장 작살내겠다, 조선도 두 달내에 그냥 안 둔다, 국세청 상속세로 뒤집어버리겠다’

다음에 2001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 한 청와대수석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조선, 동아, 중앙은 길길이 떨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겨레가 줄기차게 요구한 언론개혁을 곧 시작한다, 기사를 미리 쓰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업무상 이같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수석비서관으로 98년 당시는 李康來 정무수석, 朴智元 공보수석을 지목하고 있고 또 금년 초에는 辛光玉 민정수석, 朴峻瑩 공보수석 그리고 당시 정무수석이던 南宮鎮 장관을 꼽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러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재단이 6월말 시민단체대표, 사회운동가, 일부 언론계 인사 등이 모여 개최한 언론개혁의 현실적 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샵에서 ‘윤진기에 타격을 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발언과 현 정권의 작살내야 할, 뒤집어버려야 할 정권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사활을 건 전쟁을 해서라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언론을 보고 있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특하면 반박성명을 내는가 하면 비판적 언론을 상대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하던 국정홍보처도, 그 공으로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영전한 吳弘根 청와대 대변인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론보도청구하는 것도 없고 그에 대한 반박성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 일간지 기자가 쓴 책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25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이 현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여당의 한 후보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 국민이

분노를 느낄 정도까지 민심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많습시다라는 생략하고 그 원인의 하나로 저는 비판적 언론을 죽이기 위한 언론탄압을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한다면 정권 재창출이나 민주당 정권 연장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악화된 민심을 돌리고 분노를 달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민심악화 요인으로 인사정책의 실패를 제기했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언론탄압을 위해서 국세청에 특정지역 인사들을 전면 포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 정권은 언론탄압을 위해서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에 지역적 편중인사를 감행한 결과 현재와 같은 민심이반현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이 현재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조세정의 차원이 아닌 정권이 의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李美卿 위원입니다.

南宮鎮 장관님 처음으로 상임위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또 한국관광공사 감사할 때 전통사찰과 전통한옥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관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월드컵 숙박대책의 점검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숙박업소들을 월드컵에 대비해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132개 지정여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실제 제공할 의사가 있는 객실 수는 전체 필요의 18%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2%는 헛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있어서도 외

국인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여관을 필요로 하지 국적불명인 러브호텔같은 식의 숙박업소를 선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과 전통한옥을 활용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월드컵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도 한국에 찾아왔을 때 한국에 있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의 각 지역별로 있는 전통사찰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와 잘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스포츠산업육성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도 스포츠산업육성 예산이 작년 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은 스포츠용품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억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더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산업의 연간규모가 영화산업보다 더 높아서 한 일곱 배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두 배가 되고 굉장히 과급이 큰 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눈을 돌려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산업진흥을 위한 연구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대부분이 전문성과 운영능력 부족으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전문인력이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력양성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화관광부가 게임자원센터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체육산업진흥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체육산업진흥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도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거점 확보의 비상수단으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동경과 파리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는데 꺾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꼭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2002년도 한일월드컵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파리에서 내년도에 한국문화알리기사업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춘 예산확보로 문화원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공공도서관 도서관입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전문위원보고에서도 한국의 1인당 장서 수가 말레이시아 보다 더 부족한 0.47권이라고 하고 인구대비 도서관 수도 일본이 4만 8850인데 한국은 11만 5273명 중에 한 개를 갖고 있는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저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에 있어서 문화중심지역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할 때 도서관의 개념을 훨씬 더 시청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 또 여가 선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95년도에 아마 목표치를 정한 것 같은데 다시 좀더 2002년도의 목표치,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목표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앞으로 주5일 근무가 어떤 형태로든지 점차 확대돼 나갈 전망이라면 이에 맞춰 지역 단위 청소년과 물론 성인을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辛基南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글문제입니다.

한글의 발전 또 육성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국립국어연구원이 14억 5100만 원에서 17억 9100만 원으로 약간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청사관리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말,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더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글날 관련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교육부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글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너무 조출하고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 이미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한 자산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한글이라고 했을 때 한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관심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종합안내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관광공사 또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해서 실제 그 관광안내를 위한 콘텐츠는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낮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문화관광부가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다음 답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鍾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朴鍾雄 委員 본 위원이 언론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20일간 단식도 하고 또 100만 인 서명운동도 하고 국회 결의문도 제출하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변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책이 발간이 돼서 'DJ는 왜 지역감정 해소에 실패했나' 장관님, 이 책 보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정독은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朴鍾雄 委員 대충은 보셨지요?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언은 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수석비서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그 책 내용이 허위사실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지금 문제로 적시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제 양식과 제 인격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논의를 했거나 그런 구상을 구체화하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朴鍾雄 委員** 그 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앙일보하고 세계일보를 작살내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신문들은 상속세로 뒤집어엎겠다고, 대통령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한번 붙으면 사활을 건 전쟁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비판적 언론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그리고 비판적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체계적 언론탄압이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정무수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의 얘기가 논의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朴鍾雄 委員** 이것이 항간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행정권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언론탄압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하면 반론보도청구하고 소송하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왜 안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당이나 관계된 부처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鍾雄 委員**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는데…….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왜냐 하면 제가 그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인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鍾雄 委員** 그것이 南宮 수석이 정무수석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고 또 국회에서 오늘 당연히 이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제 입장은 그 지적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鍾雄 委員** 무슨 새삼스럽게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 책 발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롭게 밝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월 11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국세청이고 공정거래위원회고 검찰이고 요란법석을 떨 때부터 본 위원은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다가 쪽 제시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제시했습니다.

계속 현 정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끈질기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책은 본 위원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장관이고 관계 청와대비서관들이고 입만 열면 이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러한 강변을 해 왔는데 그런 말이 전부 허위이고 한마디로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우롱했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관들이 전부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작살을 내기 위해서 국세청 간부들을 전부 특정지역 출신으로 치밀하게 다 교체를 했다 하는 것이 이 책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랬고요. 실제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세무사찰에 들어가 가지고 언론사를 작살을 냈는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가 근간입니다. 헌법 21조에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린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언론자유를 갖다가 말살하고 유린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자체를 유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책 내용에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저자가 쓴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자가 실명을 적시한 바도 없고 따라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좀더 확인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이 가장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고 지금 어느 언론사가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 못쓰는 신문사가 어디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발표하면 그대로 전체가 기재되고 있고 이런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한다면 이 정부가 언론탄압 할 힘도 없으면서 언론탄압을 하는 바보천치들만 모였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언론탄압을 할 수 있는 정권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정부이고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하 각 신문에 다 나오는데 언론사에 지금 이 이상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리고 국세청의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朴鍾雄 委員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장관이 충분히 답변했겠고 장관은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정권운용의 중추인 권력기관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DJ는 호남출신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면 민주당 사무총장이 세금 좀 깎아주고 사주도 좀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야박하게 해 가지고 재·보선에 떨어지느냐, 그것이 제일 큰 이유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나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민주당 핵심당직자들도 언론사 세무조사 이 자체가 정략적으로 한 것이고 이의 비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것도 소송하세요. 현정권 소송하는 것 좋아하는데……. 지금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똑같이 그런 답변하는데 정말로 뭔가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질의하면서 장관한테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면서 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언론탄압에 가장 관여했던 사람들이 보면 물론 국세청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관련되어 있었지만 다 그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핵심적으로 언론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결국 보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공보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국정홍보처장 그 네 분들이 그런 일을 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끝나고 난 뒤에 다 자리를 교체했는데 결국 그 자리 그대로 다 자리만 교체해 가지고 공보수석이 홍보처장 가고, 홍보처장이 공보수석 가고, 정책기획수석은 실세로서 청와대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장관으로 오시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보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언론을 작살내고 언론을 탄압하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정권이 겸허한 반성을 하고 사과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내면서, 오늘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인데 본 위원이 그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렇게 서면질의서를 내도록 하고요.

내년에 장관께서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에 비해서 아시안게임이 많이 가려져 있고 월드컵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아시안게임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임장관이 전액을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예산 753억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57억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100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래봐야 457억으로 60%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장관이나 또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약속한 대로 296억이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도 분명히 듣고 싶고요.

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지역체육시설, 지역문화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국립국악원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악원 예산 14억 7000만 원하고 유스호스텔 예산 30억 이 부분도 차질 없이 반영이 되어야 하

지 않겠느냐, 또 관계관들이 서울에 와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을 다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在昇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南宮鎮 장관님이 새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부서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첫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오전 질의에서는 이 문제보다는 현안인 언론관계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문제가 되었다는 책의 저자 성한용 기자가 10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鄭範九 委員 방대한 내용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멋대로 짜깁기 되었다는 것이 성한용 기자의 주장입니다.

논란을 제공한 당사자의 입장 해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의 반박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이나 당직자의 단순한 의견도 조선·중앙·동아에 일면 스트레이트 기사로 취급되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나 金泳三 정권에서 이들 빅3는 야당의 성명이나 논평을 기사로 제대로 취급한 적이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사실상 정권 흔들기에 나

선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갈등,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반 DJ 감정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당사자인 성한용 기자가 자신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데에 대한 입장 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긴 내용을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장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관한 질의가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라면 책을 쓴 당사자인 성한용 기자 자신의 입장 표명으로 일단 논쟁을 대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 바로 예산에 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을 올해 두 번째 심사하게 되고 문화관광위원으로 두 해 국정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고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한 몇 가지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처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보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문제 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실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문제제기를 빌미로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회를 우선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소속 기관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하나만 얘기드리면 올해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특별기구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특별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올해 국내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자리에서 만나면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등 이런 식의 떠넘기기, 예산타령, 인원타령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국가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납부해 준 것인데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먼저 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사업은 점차 하드웨어 중심주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관광부가 자체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그저 외부적으로 내세운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지 여전히 예산편성의 주축은 건물 늘리고 인원 늘리고 이런 하드웨어 확장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또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예산들이 짜여져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세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을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피해가고 오히려 예산타령만 한다고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박물관 관련 예산에서 내년에 유물구입비 20억 증가요청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문화재는 확충해야 되고 국립박물관 새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에 구입한 유물 중에서 과연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구입비를 따지기 전에 충실하게 문화재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올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문제입니다라는 소산유물 관련입니다.

지금 5만여 점이 넘는 문화재가 각 지역박물관 지하수장고에 방치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측에서 장관명의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앞으로 보존관리처리에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라는 새해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 여기 어디에 소산유물에 관한 보존방침이라든가 처리방침에 대한 예산세목이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그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용 따로, 실제로 사업진행하는 용 따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지원분야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지난해 국감 때부터 이 애니메이션창작지원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대일 문화개방이 지금 3차 개방까지 되어서 애니메이션도 일정 부분 개방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식정보사업, 문화산업 쪽으로 강점을 두어간다면 이런 애니메이션 분야야말로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의식에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구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년 예산도 편성된 것을 보면 여전히 건물 짓는다거나 무슨 이벤트성 사업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광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중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총액이 24억 8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창작지원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3억 4000인데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액수 자체도 지난해에 비하면 한 59%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애니메이션 창작지원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한민국영상만화대상의 경우 4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은 시장을 위한 심사사례비, 홍보물 이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실제로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가는 시장금은 3200만 원입니다. 역시 창작지원사업으로 분류한 만화영상물제작지원사업도 15개 대학에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해서 학생작품들을 지원하는 수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얘기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원한다는 항목으로 분류된 돈이 25억 원이지만 여기서 순수창작지원을 하는 예산이 과연 얼마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와 별개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잡아놓고 있는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계획안을 보더라도 금년도 4840만 원을 10편으로 나누어서 지원한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이 내년엔 5000만 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3% 증액됩니다. 또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4편에 나누어서 진행한 장편 애니메이션개발지원사업도 내년엔 2억 원으로 책정되어서 32%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금년도에 4000만 원 책정되었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사업도 2000년도에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특히 창작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편당 제작비가 보통 30억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최대 편당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실제로 창작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방향이라고 정해놓은 것과 그것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예산편성 이런 것인데 크게 나와 있는 정책방향 따로 놓고 실제로 사업집행 따로따로 놓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관광숙박단지를 고양시에 건설하는데 내년도 국비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와 몇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柄國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鄭柄國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장관께서 바뀌신 뒤 첫 번째 상임위이고 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슈로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문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아까 장관께서 이 책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신 소감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언론사찰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내용이 신뢰도가 있게끔 느끼셨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하시면서 출입했던 기자가 보고 느낀 것들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인데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언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이것이 장관께서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그러한 세무사찰과 관련해서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혐의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책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든가 그동안 지적되었던, 드러났던 문제점들 그런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일련에 있었던 세무사찰이 기획된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언론을 탄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세무사찰을 했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이것은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 책

저자의 반론보도를 읽어 주셨습니까마는 전체적인 의도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분 구분 그 팩트 자체가 일련의 언론사찰이 언론탄압을 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책의 178쪽을 보면 2001년 3월 서울시내 한정식 집에서 현 정권의 실세와의 식사도중에 나눈 얘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내용인즉 바로 국세청 사람들이 DJ 이후를 생각할 때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소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세청 주요간부들을 미리 다 호남출신들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출신들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위의 표를 보면 국세청장에 안정남(전남), 서울청장에 손영래(전남), 중부청장에 봉태열(전남), 조사국장 이주석(전남), 조사3국장 그것만 부산이고 조사4국장(전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실세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이 뒷받침해 주고 그 결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사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련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본 위원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언론압살을 위해서 세무사찰을 기획하고 지휘한 것이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국세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 검찰, 언론 등이 일사불란하게 언론탄압에 앞장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가 이 책에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일련에 나타난 행해졌던 언론 세무사찰이 통상적인 세무 세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구속된 언론사 사주는 즉각 석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OC부위원장 문제인데 사실규명은 시간이 더 가봐야 되고 앞으로 특검도 있을 것이고 저희 당에서는 특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몸통의 일부라고 하는 정학모씨가 지금 현재 KOC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KOC부위원장직을 맡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 분이 부위원장직에 있게끔 되었는데

지 KOC에서의 부위원장 선출과정과 추천한 인사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 임명직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동안 정권의 말직에서 한 정권을 담당했었던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정권을 창출했으면 정권을 창출한 소위 말하는 주체세력들이 정권의 요직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세 그러니까 자리로 봐서는 실세가 아닌데 내용으로 봐서는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국가의 중요한, 국가조직이 마비가 되는 상황을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국정외 난맥상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면 가신이면 어떻고 실세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또 장관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신으로서 또 실세로서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존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 문화관광부 예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화관광부 예산추이를 보면 문화진흥 예산은 5년간 64.1%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에서 비중은 1998년의 62.9%에서 2002년에는 42.0%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예산은 5년간 자그마치 1085%가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에서 비중은 1998년 3.3%에서 2002년에는 15.9%로 대폭 증가된 상황입니다. 관광예산은 5년간 630.1%가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6.0%에서 2002년에는 17.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산이 1%가 넘었다고는 하지만 문예진흥예산은 그 증가폭이 작을 뿐 아니라 비중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산은 그 확보비율보다도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비중만 높아진다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순수예술의 발전은 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문화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문예진흥예산의 비중감소는 우리나라 문예진흥의 적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기반시설확충 핵심사업들인 국립문화기반시설과 문화의집 구성 및 운영예산의 감소는 이러한 우려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의 단순증가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나라 문예부흥에 적합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셨고 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해왔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왔고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해외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행사비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본사업비가 담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전진기지가 필요한데 전진기지라고 한다면 바로 해외홍보문화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의 개념이 국토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가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국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해외공보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대사관의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배정이 되었어야 될 해외문화원 확보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여망했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 못했던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의지가 불투명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진흥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

는 지금 문화콘텐츠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산만하게 비유기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문화부의 콘텐츠진흥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고 알차게 게임종합지원센터나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과 게임애니메이션 등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나 유교권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무려 56%나 되는 예산이 전용되거나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장관님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실무자한테 확인하셔서 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의 집행과정을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표적인 것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지금 전남은 남해안관광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요청서에 보면 국비와 더불어서 지방비가 함께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애기인 것이 지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다 국비지원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방비도 같이 증액을 시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 예가 지금 사업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중삼중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룡유적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성에서는 영상체험관을 만들고 해남에서는 공룡전시관을 만들고 여수에서는 공룡박물관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여수의 공룡박물관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지금 계속 지자체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나 유교권문화관광벨트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외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한

그 근거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관광객 수용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감 때에도 본 위원이 직접 방문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에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문화관광부는 인천시의 추진상의 문제점, 예를 들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54억 원 확보문제라든가 건축물의 중국풍 개량을 위한 건축주에 대한 용자문제라든가 시범거리내 주차장 확보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국고지원만 구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은 인천시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연극강사풀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연극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전국 고교에서 연극교과 교육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대입입시와 무관하다, 방해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난색을 표명을 하면서 이게 표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尹鐵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尹鐵相 委員 尹鐵相 위원입니다.

야당의 동료위원들께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도 장관께 주

부장관으로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국외의 언론의 전문학자들은 이 언론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넷독(net dog), 두 번째 가드독(guard dog), 세 번째 워치독(watch dog), 네 번째는 어택독(attack dog)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넷독은 애완용 강아지와 비교해서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고 두 번째 가드독은 무조건하고 권력을 보호하는 홍위병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워치독에 있어서는 언론과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해 가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관계, 네 번째는 어택독 이게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을 하고 물어뜯고 오히려 언론이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다 라고 이 언론학자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공방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의 야당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언론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많은 언론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이 네 번째 이런 상황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심지어는 국정운영과 이 국익에 훼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장관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언론이 여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묘사하면 탄압이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이 정권에 대해서 흔들고, 심지어는 달려들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 언론학자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야당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가 없고 야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정언유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한다면 이 세무조사 이후에 정부에 대한 비판, 국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정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작정 야당에서 먼책특권 이용해서 근거 없는 설을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리고 기사에 정치면에 1면 톱감이 아닌 것도 아주 대문짝만한 활자로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탄압이라고 한다면 언론사의 이런 대응이 과연 결과적으로 봐서 탄압인가 아닌가 장관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즉 말씀드리자면 편집권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언론탄압이라고 한다면 과거 5, 6공 시절처럼, 더 거슬러올라가서 유신시절처럼 이 보도 지침을 내려 가지고 모 기관의 검증을 맡아서 이 기사는 키워라, 빼라, 줄여라, 1면에서 3면으로 돌려라 이런 식이 언론탄압이고, 두 번째 유형으로 봐서 과거 문민시절 때 세무조사를 해 놓고 공개하지 않고 꼭 쥐고 있으면서 언론 길들이기가 언론탄압이지 현정부에서 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사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이런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겨레의 성한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낸 책에 대해서 거두절미해 버리고 한나라당에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가지고 보도했다 라고 하는 그 반박성명을 냈었습니다, 성명이 아니라 해명 기사를 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정책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姜申星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在昇 위원장, 沈載權 간사와 사회교대)

○姜申星一 委員 한나라당 출신 姜申星一 위원입니다.

저는 대체로 일문즉답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청와대에 얼마나 계시다가 문화관광부로 오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제가 1년 10개월 있었 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부처를 보면 문화관광부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여지던가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문화관광부는……. 대개 부처간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이제 겨우 1.06%인데 그러면 쉬운 말로 풀썩지요? 맨 풀썩 아납니까? 예산 수지로 볼 때 그다음 행정부처가 어디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정확히 검토를 안해 보아서…….

○姜申星一 委員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수지로 보아서 문광부 다음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文化觀光部次官 尹迥奎 저희 문광부 보다는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것이 1점 몇%인데 그런데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업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여기 관광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장관께서 어떤 방향으로 소신있게 문화관광부를 끌고 나가실 것인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에 장관한테 질의로 던지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전임 장관들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南宮 장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그 원칙은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姜申星一 委員 제안설명에 보면 어느 사업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제안설명하신 것이지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姜申星一 委員 그리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劉震龍 문화산업국장 계시지요.

목동에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언제 가본 일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자주 가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떤가요?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출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이

어때요, 공채로 다 뽑았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예.

○姜申星一 委員 그것이 국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지금 인력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인력만큼은 뽑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명 정도 뽑는데 600여 명이 관심을 보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래요. 그렇지만 문화산업콘텐츠진흥을 위해서는 그쪽의 매니아 뿐만 아니라 그쪽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업무를 하게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앞으로는 그야말로 국장이 볼 때도 우리 문화콘텐츠산업 자체가 여기 제안설명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핵심산업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렇게 생각합니다.

○姜申星一 委員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수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이 효자산업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모두에 제안설명이 있었을 때 잠깐 언급을 하다 넘어갔습니다마는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산업 이런 것의 구분이 지금 조금 애매하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각각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모두에 鄭柄國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데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쪽하고도 영화산업 쪽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콘텐츠는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산업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런데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자금이나 그런 것을 보면 현장에서 애니메이션하고 게임에 대한 것은 건물을 하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는 다른 것은 또……. 거기에서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될 지……. 여기에 무슨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온갖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건물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그렇습니다. 지금 넓은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

○姜申星一 委員 앞으로는 한 묶음으로 하도록…….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소라든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제공한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기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충분히 지원을 하계끔 과학적으로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체육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U대회조직위에서 예산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文化觀光部體育局長 鄭泰煥 437억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대회와 견주어서 이야기하면 그 전에 U대회를 했던 지역이나 부산아시아게임이나 각각 규모로 보아서는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대구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전에는 3대 도시니 어쩌니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전혀 국제대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도시 자체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대회라고 제대로 하나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 요구규모도 많지 않은 것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원을 좀더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이 되어도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깎아버리면 대회를 치르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體育局長 鄭泰煥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서 437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부에서 시설개·보수비를 제외한 우선 예산에 편성하기 곤란한 도로정비사업 등의 56억 원을 제외한 381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도 국제경기대회 시설비만은 지원한다는 원칙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서 경기장시설 개·보수비는 165억 중에서 149억이 반영되고 경기운영비는 215억 원 중 210억 원은 삭감하고 5억이 반영되어 경기장 시설개·보수비로 149억 원, 운영비로 5억 원 해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러니까 아시안게임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것은 10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文化觀光部體育局長 鄭泰煥 그래서 저희들 조직위가 요구한 예산의 운용계획을 보면 전부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 방송시설, 안전장비 구입 등 시설비 쪽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대회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부에서 이 부분이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姜申星一 委員 국장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주시시오.

그다음 질의할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載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鄭鎭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鄭鎭碩 委員 鄭鎭碩 위원입니다.

용산국립중앙박물관 건립예산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또 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을텐데 당장 쓰이지도 않는 이러한 예산을 묶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과다 이월액을 연례적으로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박물관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께서는 생각하시는

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박물관 신축공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개관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개관전시준비항목으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울러서 연유를 밝혀 주시고 주한미군 헬기장 이전예산 확보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전부지 문제를 포함해서 헬기장 이전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최근 한겨레신문 成漢鏞 기자의 저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언론사태가 그야말로 공평과세 차원에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해 온 언론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배경에 의한 탄압이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적 기도에 의한 결과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에서 얼마든지 방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련의 언론사태의 정치적 배경과 실제적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들이 이 책 내용에 속속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책의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사실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서술되고 기술된 내용들이 아니라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의 구체적인 언급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도 날 것의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들로 일관되어 있고 다분히 공격적이고 다분히 언론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들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충격은 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소개가 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998년 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문건을 보여주면서 “언론이 이럴 수 없다. 중앙과 세계는 당장 작살내겠다. 조선도 두세 달 안에 그냥 안 둔다. 국세청 상속세로 뒤집어버리겠다. 시작하면 일단 사활을 건 전쟁이다.” 이게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의, 우리나라 국정의 핵심인사들의 소위 우리나라의 언론관에 대한 일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토양은 언론입니다. 청와대와 우리나라 국정을 향도해 나

가는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이런 인사들의 대 언론관이 이 정도라니 정말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예요. 이것은 적개심과 증오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언사 아닙니까? 이런 언사를 어떻게 민주화 투쟁경력을 기본토양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의 청와대 간부들이 내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런 언급들이 정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세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제가 아까도 유사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다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여건에 있어서도 확고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아울러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공정한, 국민에 대한 책무도 있다는 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鄭鎭碩 委員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사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갈등, 지역주의를 악용한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소위 정권 핵심부의 한 인사는 “세무조사는 정권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한다. 국세청의 주요 간부들을 미리 다 호남출신들로 바꾸어 놓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출신들 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이 저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6월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하는 자리인 국세청장과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을 전부 호남출신 일색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安正男 국세청장, 전남 영암출신. 金成豪 서울청장, 전남 목포출신. 孫永來 조사국장, 전남 보성출신. 4·19 때 李起鵬 집에다 불을 지르던 기백이니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마니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지결인 安正男 국세청장의 말이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찬 주장인가 이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한겨레신문 오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金明燮 민주당 사무총장이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세무조사결과 추정하기로 한 언론사의 세금을 경감해 주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이런 사실은 정부에서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정의에 따라, 법대로’를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집권당의 고위당직자가 세무행정을 두고 정치적 거래도 불사하겠다는 의식을 지녔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나라에 언론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언론이 작동하도록 지금 허용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저희 문화관광부소관에 있어서의 대 언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鄭鎮碩 委員 문광부가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의 정부 들어서 언론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자유를 신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정책을 펼쳐 왔는지 답변해 보세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언론자유에 대한 신장은 언론도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鄭鎮碩 委員 바로 맞는 말씀이에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언론의 자유시장경제라 함은 언론이 편집권의 독립에 있어서 스스로 자유스러운 언론에 전념하고 다만……

○鄭鎮碩 委員 맞는 말씀이에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언론기업에 관련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엄정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金明燮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저와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못 했지만 엄중히 따지면 국세청에다 대고 봐주라고 하는 것도 언론탄압이고 세무조사하는 것도 언론탄압이고…… 그러면 가만 두는 것이 가장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 아닙니까?

○鄭鎮碩 委員 말씀 다 하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鄭鎮碩 委員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과연 누구냐 이것이 또 이 책을 읽어 본 독자들,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南宮 장관님께서서는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오셨고 나름대로 어떤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

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저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있어서는 진정한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鄭鎮碩 委員 지금 언론사 사주 세 명이 구속되어 있다가 한 분이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도 언론분야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나머지 사주 두 사람의 석방이 과연 일련의 언론사태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載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姜成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成求 委員 수고들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50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콘텐츠 진흥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문화산업의 비중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쓰임새도 창작기반조성에 170억, 마케팅과 수출활성화에 187억, 전문인력 양성에 143억 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개별 프로젝트보다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지원방향을 잡은 것으로 봅니다.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고품질의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전략콘텐츠사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2003년 문화콘텐츠 핵심생산국 진입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21세기 문화대국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문화 콘텐츠산업 규모가 세계 시장의 1% 내외에 불과하고 외국문화 콘텐츠상품이 국내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문화콘텐츠사업은 조기 투자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독식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문화콘

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까지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姜申星 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적 의견도 있는만큼 그 지원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하는 등 공공부분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 여부도 결국은 이 콘텐츠와 운영의 묘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내역 가운데 현지어버전 제작 지원같은 문화콘텐츠국제교류지원에 문화콘텐츠진흥사업예산의 10%인 50억 원이 반영되어 있을 만큼의 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한류열풍 지속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문화의 해외홍보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관광부가 해외홍보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외문화원 가운데 아직 독립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도쿄문화원의 독립청사마련 문제와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파리문화원청사 이전을 위해서 300억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진정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견해를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지원육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에도 많은 과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발전방안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

고 있는만큼 세계 각국은 주요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현재 12조 1300억 정도입니다. 국내총생산의 2.48%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관광, 미디어, 인터넷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또 기술력, 국내외 첨단정보 및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늦었지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경우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스포츠산업 육성계획수립과 아울러서 가장 기초적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청했는데 2억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광부는 추가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해서 이 스포츠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특별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載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南景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南景弼 委員 감사합니다.

南宮鎮 장관께서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남씨가 장관에 중요하게 올라서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굳이 남궁씨하고 남씨는 다른 성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언론관련문제가 나오니까 좀 흥분하시는데 장관님이 흥분하시면 야당위원들이 덩달아 흥분하니깐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체토론때문에 하는 것인데 금강산관광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또 3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또 지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 정상집 문제도 사업규모를 축소하

고 기획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진흥예산이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중복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TV중간광고 허용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金大中 정부의 방송정책의 근간이 되는 방송개혁위원회의 광고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것이 陳稔 부총리의 발표에 의해서 공식화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관부처인 방송위원회와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언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조금 아까 놔두는 것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언론사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언론개혁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세무조사도 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봐준다, 이것은 기자가 함정파기식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오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번 재·보선 실패 이유가 당이 이런이런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언론사 세무조사같은 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서 그랬다고 자기 스스로 변명을 하는 와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당의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당의 사무총장이 국세청장, 서울 국세청장,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얘기는 조세정의 차원이 아니라 여당에서 필요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또 필요하면 적당히 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과연 이러한 발언이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한용 기자의 저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동안 그토록 얘기했던 언론장악 문건 거기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언론정책의 주무장관인 문화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책의 내용을, 장관께서도 그동안 청와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역시 한 분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수석비서관은 누구인지 또 정권 실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또 잘 읽어보면 이 정권 실세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朴智元 정책기획수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실세라는 표현이 朴智元 수석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지금 여당의 개혁파, 소장파 의원들이 역시 朴智元 정책기획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게 언론에 대한 정책 또 언론탄압에 앞장섰기 때문에 여당 개혁파 의원들도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만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2000년 3월의 대화입니다. 현 정권의 실세 인사와의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세무조사는 철저히 하는가?’ 했더니 실세, ‘물론이다, 정권 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한다.’, 기자가 ‘국세청 사람들도 DJ이후를 생각해야 할텐데……’라고 질의하니 실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국세청 주요간부들을 미리 다 호남 출신들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 출신들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鄭鎭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국세청 인사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언론사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는 언론사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취하고 있는 정부 소유 언론사 5개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5개 언론사 알고 계시지요? 여기 5개 언론사의 사장님들 출신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교롭게 5개 다 호남지역 출신입니다.

이러한 일맥상통한, 이 정권실세의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닌지. 언론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것이 정부가 얘기한 언론장악을 위한 미리 자기사람 심기가 아닌 것인지.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제의 달밤이 아니냐는 우스운 소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중인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번 책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통계가 한두 개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된 분들의 한분 한분 개개인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통계를 볼 때 언론, 언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가 너무나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편중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민심이 이 정부를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각종 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공보팀 8명중 5명이 호남지역 출신입니다. 문화관광부 1급 이상 4명중에 2명, 국정홍보처 3명중에 2명, 방송위원회 1급 이상 7명중 4명, 공영언론사 사장 5명 모두 호남출신입니다.

KBS 임원급 9명중 5명입니다. MBC 임원급 9명중 4명, 또 언론유관기관 단체 22명중 9명입니다. 공영언론사 주요간부 사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15명중에 10명입니다. KBS의 경우 3명 모두 호남출신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인사야말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없고 또 정부가 그동안 아무리 그간의 언론정책이 조세정의 차원이다 언론개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믿지 않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런 책에서 밝혀지게 하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들으면서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밝혀 주시고 이것을 장관으로서 시정하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것이 시정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편중인사 관련부분은 저도 잘 흥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큰 실수를 했는데 존경하는 南景弼 위원님의 충고 말씀 때문에 제가 원위치로 돌아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수치를 보면서 굉장

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것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오기 전에 20년 동안, KBS 이사 중에 호남 사람은 20년간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쁘게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반성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서 이것을 함께 노력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이라는 말을 들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양심을 두고 제가 정무수석을 하면서 생각인데 그런 얘기를 들 때는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언론을 다루는 주무부의 장관이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감히 지금 어느 세대인데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조작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南景弼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들 잘 새기면서 이 나라 언론이 크게 창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南景弼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載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南景弼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책자에 나오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석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부분은 지금 사회자 위치에서보다도 한 동료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南景弼 委員 그것이 왜 적절치 않지요?

○委員長代理 沈載權 어떻게 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인격이 모욕될 수도 있는, 훼손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적시해서 아무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바로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 남 위원께서 적절히 속기록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南景弼 委員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좀 부적절한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사회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박지원 수석이 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언론을 보면 박지원 수석이 당사자라는 낚임스의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수석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이 정부 들어서 공보수석 그리고 문화부장관, 정책기획수석, 중간중간 잠깐 잠깐의 쉬는 틈이 있었지만 특히 언론정책에 관련된 자리에 있어 왔고 흔히들 박지원 장관이 문화부장관 시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더러 속칭 부통령이라고도 한다, 소통령이라고도 한다, 실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이 바로 이 책이 얘기하는 그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적한 것을 속기록 삭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載權** 그야말로 본 위원이 만약 사회자 석에만 있지 않다면 좀더 참 직설적으로 여러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아직 정확한 어떤 그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평소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처럼 중요한 국면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적시해서 그렇게 물어서야 안 되지요.

高興吉 위원 말씀하십시오.

○**高興吉 委員** 지금 사회자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회자의 권한을 넘는 일인것 같습니다.

지금 南景弼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박지원 수석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것은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혹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질의한

것을 가지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라는 것은 사실상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괜히 지금 바쁘는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委員長代理 沈載權** 南景弼 위원 말씀하시지요.

○**南景弼 委員** 존경하는 우리 沈載權 위원님께서 아마 15대 때 국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에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중앙일보의 편집국, 사장실에 밤늦게 들어가서 물 컵을 던지고, 뭐 주장은 좀 다릅니다마는 폭압적인 언사를 했다 안 했다가 가지고 우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내내 그것이 핫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실세라고 했던 분 또 수석이라고 했던 분이 했던 그 어딘가 너무나 많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분이 여기에 얘기하는 실세나 수석비서관이 아니냐라고 장관한테 물어본 것은 전혀 의원의 무슨 면책특권 운운할 필요조차 없는 정당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沈載權** 지금 우리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이렇지라도 요즘 우리 언론풍토가 어떻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 참 상당한 정황적 증거를 갖고 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진실인 양 이렇게 부풀려지고 보도되는 그런 사례들, 우리 잘 보고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회자 석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南景弼 위원께 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崔龍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龍圭 委員** 崔龍圭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문화예산 1%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문화예산 1%를 지켜내신 장관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 鄭柄國 위원님 또 姜成求 위원님께서 재한국문화원의 청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權 간사, 崔在昇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작년도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의원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총리의 답변도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적극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한 것이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모면하자는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문화원이 민단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민족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한 조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만 면하고자 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지금껏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측의 태도가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실상은 종전에 해외문화원은 문화의 전진기지입니다 하는 화두로 동료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서명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위원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런 만류 때문에 지금껏 주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문화원의 현황이 어떤지 장관님께서 별도의 보고를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번듯한 문화원이 있는 반면에 재팬 파운데이션을 통한 음악문화원 형태의 문화원이 또 하나가 한국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단 아파트 건물 8층, 9층을 세내서 자료실에 책을 더 가지고 들어갈까봐 현관수위가 우리 한국인들이 들어가면 짐을 검색하자고 대드는 것이 우리 한국문화원의 현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사대계라는 책자가 거기에 없길래 제가 기증을 하겠다고 문화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감스럽게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붕괴될까봐 반입이 현관에서부터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단의 강당을 빌려가지고 우리들의 공동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경문화원에 가서 전시를 하고 나면 커다란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국내의 많은 예술인들의 작품이 지금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만도 못한 체육관 강당 벽에 걸어놓고

전시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우리 문화외교 현실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작년에 대정부질문의 큰 제목으로 놓고 이 질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에 관한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금 장관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정무 쪽 일을 보셔서 이 내용을 다는 모르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간 문화부에서 예산 수립과정을 자세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또 이 예산이 모조리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각 부서의 마찰이 있을 때 현재 이것을 제대로 조정해 낼 능력 있는 부서는 청와대 비서실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장관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있고 현 장관이 정무수석에서 나오셨는데도 이 예산 하나 제대로, 국가적인 과제로 같이 인식을 한다면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국악강사 풀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국악강사 풀제를 시행해서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예산도 금년 10억에서 내년엔 15억으로 상향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782개교를 대상으로 두 사람씩 월 2회 나가서 교육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내실 있는 국악교육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납니다.

저는 국악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지 모자라는 강사를 파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국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악기를 보급하고 충실한 교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악기 보급이나 시청각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로 영상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국악 시청각 교재의 확보는 장기적인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 시청각 교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관련단체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통예술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단체를 활용한 교재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이론적인 근거와 실기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내실 있는 교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 인프라 확보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연예술 인프라가 우리의 경우 지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대학로의 경우에 대표적인 공연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땅값의 상승과 이에 따른 대관료의 부담으로 공연예술이 활성화 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연예술 인프라의 확충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대표적인 경우로 뉴욕시의 어물창고를 개조해서 오늘날의 브로드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연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정부예산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1500석 내외의 중극장 2개, 200석 내외의 소극장 6, 7개 정도를 갖춘 공연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를 연극단체나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연극인들은 현재의 무대를 모두 옮기겠다는 의향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2의 대학로 건설과 같은 문화지역 형성을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께서는 공연예술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올해 배정된 지방문화회관 건립 지원 예산인 31개 기관에 18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예산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개당 약 5억 8000만 원의 지원인데 너무 미미합니다. 국고역할이 10%에도 미치지 못해서 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연인프라 구축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공공연장의 대부분이 지역문화회관인 실정입니다. 이를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건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향, 조명, 무대시설 등의 교체가 필요한데 한 곳당 약 2, 3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현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문화회관을 공연인프라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

고 봅니다. 500석 이상의 공공공연장을 우선 142개 정도를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선별작업을 거쳐 개수작업을 한다면 연간 약 100억 정도의 국고가 필요하고 3년 후에 전국에 100여 개 이상의 제대로 된 공연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추가예산 편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연장은 있는데 관리인력이 전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무대예술 전문인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국감에서 정책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문예진흥기금의 확충 필요성, 인천공항을 근거지로 한 남해관광벨트와 같은 새로운 관광단지조성 확충 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高興吉 委員 오늘 우리 南宮鎭 장관님과는 첫대면인데 사실상 조금 전 답변에서 몇 가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남궁 장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이것 읽어보셨느냐는 것이 있었지요? 이것 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鎭 예, 정독을 못했습니다.

○高興吉 委員 사실 저는 한 신문기자의 저서가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일도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南宮鎭 장관께서는 이 책이 나왔으면 누구보다도 가장 정독을 하셨어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청와대에 같이 계셨고 또 이 기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본인에 관계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은 정독을 하셔야지 됐고 또 특히 오늘 문광위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얘기는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고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

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심의를 논의하는 정책질의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많은 공무원들이나 또는 산하기관 단체장들께서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 기관 것이 혹시 깎이지나 않나, 어떤 문제점은 없나, 지금 전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계실 상황인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이 사안이 워낙 시급하고도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해명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가 2년 8개월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성 기자와 마찬가지로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5공 시절에 2년 8개월 동안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기자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 또는 전해 들었더라도 정확하게 믿을 만한 소스가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특히 이 저서의 내용을 보면 다이렉트 쿼테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본인이 직접 듣고 메모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본인이 직접 취재해서 듣고 기록했던 내용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년픽션 작가라든가 소설가들이 쓴 책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책을 저술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뢰를 가하는 것은 기자의 차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 조·중·동의 청와대 출입기자가 썼다는 것하고 신문개혁을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소속기자가 썼다는 것은 내용의 객관성에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이런 글을 쓴 한겨레신문 기자의 내용이 다른 어느 기자가 쓴 것보다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청와대 측이나 정부의 반응은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정독을 안 했다고 하셨지만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부대응은 명확한 입장을 회피한 채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 책을 안 읽어 보아서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전부 남의 얘기하는 것과 같이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언론계가 무수히 주장했고 저희 야당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라는 것은 언론길들이기이고 언론말살 작전이고 이것은 정부의 오래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으면 당연히 그 저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되고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이 책을 쓴 성 기자가 소설을 썼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정당한 세무조사였다고 주장한 정부여당의 얘기가 거짓이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소설을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100%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실세가 누구인지 이것도 언젠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세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답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의 진실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핵심 실세가 누구인지, 세 번째 만약 야당의 주장이 거의 맞는 얘기이고 야당의 주장대로 거의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부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실상 구속되어 있는 언론사주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해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부 소관 예산에서 여러 위원들, 특히 민주당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될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무조건 예산을 늘리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해 가지고 순증을 시켜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퇴장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에서 그런 돌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증액하는 것은 기존 예산을 삭감한 연후에 조정해야지 순증시켜 가지고 인심쓰기식의 예산심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절대로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서 증액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할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부 자체 내에서 순서를 매겨 가지고 이런 것 얼마 정도는 삭감할 수 있겠다는 예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위원들도 무리하게 예산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감과 동시에 증액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라고 어떻게 만능입니까?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산증액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테니까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서 삭감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가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효율적인 심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 委員 오늘도 소위 언론탄압 공세가 단골메뉴로 등장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울화가 치뵙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언론탄압이라고 해 가지고 요새 새로 나온 메뉴로 성한용 기자의 책을 들고 있고 아까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여당의 쇄신운동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탄압하니까 여당위원들이 쇄신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서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언론사주 석방까지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관한테 할 말입니까, 장관이 석방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석방을 원하면 법관에게 탄원서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모든 피고인들이 다 냅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도 없지만 가족, 친구들 탄원서 다 냅니다. 그 탄원서에 한 장 더 보태면 될 일입니다. 왜 장관한테 얘기합니까?

그리고 성 기자 책은 하도 유명하길래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성 기자 책에 보면 언론세무조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저자의 의도나 저술내용 또 결과적으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하고 사뭇 달라요. 전혀 딴 판이예요.

이 책에 보면 우선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 특히 지역감정을 이용한 행태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현 여당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언론에 무차별식 때리기 보도행태가 날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당혹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관계자들이 언론과 타협해 볼까 유혹을 느꼈던 사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원래 그런 성향이니까 타협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타협에 이르지 않고 법을 집행한 사실이 나옵니다.

결국 언론탄압이 아니라 여당이 언론과 타협하지 않고 길들이기를 시도하지 않고 법을 집행한, 정면대결을 피한 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서 그 관계자들이 느꼈던 고충사항을 리얼하게 표시하고 있는 책임입니다.

일부 내용만 거시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자 본인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것을 크게 떠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 저술의 본의와 어긋난다고 해서 상세한 해명을 하고 반박문을 게재한 것 아닙니까? 왜 저자의 주장을 마음대로 왜곡합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저자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쇄신운동은 누구보다도 야당에게 더 필요합니다. 아니, 야당에게 더욱 소용되는 것입니다. 언론탄압 언론세무조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소위 쇄신과는 누구보다 언론세무조사를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요구했던 사람

들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엉뚱하게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이런 정치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그리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엉뚱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예산 1%를 확보해야 합니다.

1인당 문화예산안을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 프랑스보다 1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문화예산이 97년 기준 18불입니다. 독일은 173불, 프랑스 167불, 미국 154불, 일본 73불입니다. 지금 1조 넘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3%는 되어야 문화국가가 됩니다.

장관계서도 전임 장관들의 숙원사업을 잘 기억하셔서 문화예산 3% 달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어서 국고로 가고 기금도 줄어들고 그랬어요. 내년 6개 사업에서 64억 원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215억이 151억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서관 콘텐츠 확보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 수는 0.52권으로 미국의 5분의 1, 영국과 일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2000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2위로 비약적으로 도약한 핀란드가 국민 1인당 장서 수 면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3배가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약소국 핀란드가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책을 안 읽는 우리나라는 사상누각입니다. 도서관 지어주고 책을 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까지 1인당 장서 수 0.52권에서 최소한 1권으로 하려고 해도 올해 150억 예산은 필요해요. 이렇게 죽 가야 해요. 150억으로도 부족합니다. 공공도서관 구입비 예산 최소한 150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4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을 내년 예산에서 확보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글날은 국경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발의가 되

어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홀딩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가 노는 날이 많다 생산성이 떨어진 다 이런 이유로 잡고 있어요. 문화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보면 노는 날이 많지도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이고 노동시간도 제일 깁니다. 주 5일 근무도 아직 안 되었어요. 주 5일 근무해도 우리는 노동시간이 많아요.

설사 노는 날이 많아서 국민들을 일 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난다면 공휴일을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률도 아니에요. 대통령령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하나 줄이면 간단해요. 그렇게 노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 두렵다면 말이지요.

그 논리를 문화부장관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南宮鎭 장관께서 누구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이거 하나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관들이 힘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년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 니다. 최후의 승부처예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없어요. 작년의 2배라고 하지만 작년에는 6개월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입니다. 인원증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설요원만 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련지도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수련지도교사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거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원 확보를 위한 예산, 20명 증원 그 중에 15명이 교사인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운영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영업을 해서 그 이익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인가? 일본은 운영비 전액, 독일은 80%, 프랑스는 60%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족분 2억 원은 최소한도 대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沈載權 委員 沈載權 위원입니다.

우리의 야당 동료위원들께서 구속된 언론사주 석방문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또 최근에 일부 야당위원들께서 제출한 언론탄압 중단 및 구속언론인 석방촉구 결의안 등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고 입법부가 스스로 언론의 방패막이로 전략하려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존립의 근거가 되는 공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를 지키고 입법부의 위상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첫째,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언론사주라 하여 석방해야 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가 제정한 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말자는 의미로서 입법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53년의 우리 헌정사에 비추어 봐도 이 결의안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헌정사상 석방요구 또는 결의안은 총 32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5건은 동료 의원들의 석방요구였습니다. 나머지는 반공포로 관련 2건, 시국사범 등 양심수 관련 3건, 구속학생 석방 관련 1건 그리고 바로 이번에 제출된 언론사주를 석방하라는 결의안입니다.

가결된 14건 중 12건은 헌법 제44조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규정에 근거한 동료의원 석방요구이기에 법적 근거도 없이 사법권을 침해하자는 언론사주 석방촉구 결의안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머지 2건은 지난 54년 정부와 UN군사령부가 포로석방을 선언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반공포로급인도군비행에대한경고에관한결의안제출의견’과 88년 군사독재시절 반독재 민주

화투쟁과 관련되거나 고문 등에 의한 용공조작으로 인한 양심수를 구제하려는 ‘양심수등의석방·특별사면복권및수배해제촉구를위한특별결의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양심수를 위한 90년, 91년의 ‘시국사범·장기수등의석방·특별사면·복권및수배해제등촉구를위한특별결의안’은 처리조차 못한 채 임기만으로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야당위원들이 제기한 이러한 결의안은 헌정사에 사법권 침해의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국회가 처리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고 보는데 언론 주무관으로서의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겨레신문 성한용 차장 저서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에 인용된 일부가 거두절미된 채 그야말로 저자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일부 야당위원들에 의해서 또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왜곡 보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한용 차장은 이른바 소위 빅3 신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도한 것에 대해서 다음날 한겨레 지면을 통해 통렬히 반박했고 더 나아가서 지난 26일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적도 없고 또 일부 내용을 아예 허위로 왜곡 보도했다고 해서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 차장은 빅3를 겨냥해 반박했지만 사실은 이 빅3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을 무작위로 거두절미해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야당위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더욱이 지난 2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동 신문 26일자 “국세청 주요간부 호남출신으로 바꾸었다.”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반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安正男 전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 전 직원의 원적을 파악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외에 조사실무의 요직인 조사계장 등에도 빠짐없이 호남출신을 앉혔다는 기사에 대해, 조사국장은 영남출신이 2명이고 호남출신 2명으로 99년 9월 보직을 받았고 또 언론사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계장 37명 중에 영남이 12명, 호남 13명, 충청 등 중부권 출신 12명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자체에 대해서 반박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보면 그렇게 해명 기사가 옹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대서특필되어서 대문짝만하게 잘못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도대체 이렇게 일부 언론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당 간사로서 참고로 우리 당의 金明燮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길래 오늘 낮에 발표된 해명서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자 한겨레신문 “서울국세청장의 언론사 세금 깎아 줘라 종용 이래서 과문이 있는 보도내용은 10·25 재·보궐선거 패인에 대한 원인과 분석에 대한 본인과 언론사 기자들의 대화내용이 본의와 다르게 와전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10월 말경 당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신입 인사 방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신입인사 차원의 방문으로 격려인사만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기자와의 대화내용 또한 최근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교환만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전문 그대로입니다. 金明燮 사무총장께서 밝히고 있고 존경하는 야당위원들께서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침에 이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야당을 탄압하고 길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 10·25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기 처한 입장에서 그 패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 폭로가 보도되고 이런 것이 일부 야당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대서특필되고 이런 것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나름의 우리 당 총장으로서의 속상함이 있었고 그런 것이 그야말로 사적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또 예산 따내기 힘든 기획예산처와의 씨름에서도 어쨌든 1%가 넘는,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준 문화관광부 여러 공무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으로서도 청소년 문제를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1일자 중앙일보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17개국 약 1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13%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아예 0%였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총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게 참으로 커다란 사회적 병폐, 병리에 젖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뭘 알아서 어른을 비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선생님이 우리를 성의껏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잘 안다,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거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자습하라고 그러면 이 자습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선생님이 자기 일 하려고 우리 보고 자습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왔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비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어른 대책, 기성세대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큰 병리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 대책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청소년국에서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들에서 사실은 청소년 문제를 시발로 한 어른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어쨌든 제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것은 정당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유니세프 설문조사 발표 후에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기성세대의 어떤 모범된 삶 보이기 또 기성세대와 청소년들간의 가치관 차이 극복 또는 세대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 확대 뭐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어떤 청소년기관에서 이걸 묻길래 그 답을 나름대로 써 봤는데 써 놓고 나서 그 답을 보면서 이것 얼마나 참 공허한가, 정말 아주 공허하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보다 어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청소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서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의 대책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청소년 기존 정책 예산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루고 또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235억 50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및 지원 67억 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약 40억 4000만 원, 청소년단체 지원 약 40억 원 또 청소년상담실 운영 약 21억 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약 8억 원, 평화를 위한 아동화합행사 25억 원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개최 등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상비 보조,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 그 다음에는 어떤 1회성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근본적 대책과 더불어서 지금 어떤 기존 세우고 있는 예산 이런 쓰임새마저도 보다 더,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저 자신 참 그 어렵습니다마는 더 그렇게 놀라운 자금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 마치셨는데요, 그 소속기관장이나 산하단체장 중에서 답변하실 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소속기관장이나 산하단체장 중에서요, 답변할 게 없으신 기관의 장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委員長 崔在昇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계시지 않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장시간 동안 우리 부를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沈揆喆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원한 시민언론단체의 연수와 관련해서 재단이사장을 퇴진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주필 등에 대한 인사조치요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언론단체 간사 연수 지원의 건은 해당단체의 지원요청에 따라서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이 일체 관여치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단 이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고 나름대로의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연수내용이 연수의 근본목적과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앞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인사문제…….

○沈揆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요.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실상을 잘 모르시는 답변 같습니다. 지난번 언론재단 국정감사 당시에 나타난 문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봤습니다.

○沈揆喆 委員 재단이사장과 간부들이 다 결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또 언론재단의 간사가 말미에 자기 의견을 첨부합니다. 세미나 내용을 쪽 녹취한 그 문건의 말미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국언론재단이 이와 같은 언론개혁운동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이사장이 다 결재한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시민언론단체 그 내용도 제가 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야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그 문제를 간과하고 처리하는 면이 일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재단이 이런 연수내용을 꼼꼼하게 다 챙겨보고 연수의 근본목적하고 배치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강구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沈揆喆 委員 아니, 언론재단의 간사라는 직원이 언론재단의 나가갈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재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면 앞으로 언론재단이 그런 일을 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재단이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방송발전기금사업계획서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의를 빚어 놓고도 그런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언론인들에 대한 언론재단의 연수의 근본목적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그 사안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감사 바로 직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문체 제기를 했고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유사한 그러한 연수내용이 금번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이것은 챙겨나가 보겠습니다.

○沈揆喆 委員 글썄요. 여기 제목이 언론시민운동단체 간사 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소위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서도 솔직히 그 내용 보고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민운동이냐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운

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깡패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소위 시민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또 관련 대학교수들의 입에서 나오고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자는 이야기인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조망하면서 어느 정파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더욱이 정파에 휩쓸리면 안됩니다. 오히려 정권과는 거리를 두고 어떻게 말하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것은 우리 역사상 이런 시민운동이 있었던 지가 의아할 정도로 이런 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신문에 타격을 가하자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沈揆喆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심분 이해를 하면서 사실 언론재단의 연수문제는 각 언론인들에 대해서 시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말하자면 시민언론단체라든가 한두 곳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꼼꼼히 챙기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揆喆 委員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으로 오늘 南宮 장관을 대면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언론재단이 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청받아서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를 국정감사를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소위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고 또 정부 유관기관이 나서고, 방송이 나서고 또 일부 신문도 가세하고 여기에 시민단체라는 것까지 동원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무역할을 언론재단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언론재단 이사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분위기를, 본인은 실사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본의로 그랬든 위에서의 분위기에 밀려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했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요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

늘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도 거기에 관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주신 뜻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 鄭柄國 위원님, 鄭鎮碩 위원님, 南景弼 위원님, 高興吉 위원님, 沈載權 위원님께서 같은 사안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책자와 관련하여 청와대수석 등의 발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른바 언론사태의 본질은 언론탄압이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무수석 당시 세무조사에 관여한 바가 없었는지, 책자에서 언급된 수석비서관, 정권실세가 누구인지, 언론탄압행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구속된 언론사 사주를 석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자가 저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장기 미 조사 범인에 대한 일상적인 국제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언론탄압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무수석 재직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을 했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책자에서 언급된 수석비서관이나 정권실세가 누구인지는 현재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국제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속중인 언론사 사주의 석방문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부는 모든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 각 언론사는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

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美卿 위원님께서 월드컴시 전통사찰의 숙소활용을 위한……

○沈揆喆 委員 제 질의에는 다 답변하신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관련된 부분은 또 후반부에 나올텐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揆喆 委員 아까 제가 시간관계상 준비만 해놓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미디어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李美卿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답변 다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추가질의를 답변 받으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委員長 崔在昇 李美卿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많지 않습니까?

○沈揆喆 委員 간단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간단히 5분 이내에 끝내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그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기가 불충분하므로 시물레이션 조사를 해서 또 이 사안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 시물레이션 보고서가 왔는데 자체의 판단으로 명백히 적시된 내용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 시물레이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방향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揆喆 委員 제가 예산질의를 아까 전혀 못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기회 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많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부산시가 재원마련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따라서 아시안게임 지원을 못할 경우에 문광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것도 이따 기회 닿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해서 계속 이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월되고 있는만큼 내년도 예산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계속 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해서 이미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한 예산중에 50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금에 따로 470억 원이 있는데 따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 유사부분 같은 것은 잘 조정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중복 유사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이따 시간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강산관광사업의 현실은 관광공사가 뒤늦게 파악하고서 남북협력기금을 현대측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문광부와 어떤 조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강산관광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면 당초에는 금강산관광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업에 참가했다고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사업참여결정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큰 변화는 없고 당초 추가 450억 지원하려고 할 때는 저희가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육로관광이 개설될 때 이것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그동안 회담도 자꾸 연기되고 또 지금 회담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더 이상 저희가 쓸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회담 진전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육로관광이 개설되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강산이나 관광특구, 개성공단에 대해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沈揆 委員**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했

던 사항입니다. 육로개설이 언제 될 것인지 그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문제도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뻔한 사안을 가지고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식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말씀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崔在昇** 장관님, 이 부분은 지금 네 분이 기다리시니까 답변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알겠습니다.

李美卿 위원님께서 월드컵시 전통사찰의 숙소활용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월드컵 기간동안 사찰을 이용한 숙박은 단순한 숙박대책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상품 개발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불교종단협의회 등 불교계에서 사찰을 이용한 숙박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제 우리나라의 27개 종단 대표님들을 모시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에서도 예약, 홍보부분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대책은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에서도 전통사찰 등을 활용한 숙박프로그램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 프로그램이 성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李美卿 委員** 이번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李美卿 위원님과 姜成求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예산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를 종합관리할 체육산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장단기계획

을 수립하여 현재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3년간 총 30억을 투자해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사업, 교육시설 확보, 기자재 구입, 스포츠시설 경영자과정 등 5개 과정 1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5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개별업체에 대한 경영자문, 신기술 개발지원,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윈스톱 서비스 센터로서 스포츠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 등을 생각해서 2003년 이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계획은 2003년 이후에 추진토록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美卿 위원님, 鄭柄國 위원님, 姜成求 위원님, 崔龍圭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경, 파리 재외문화원 독립청사 신축 이전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동경, 파리문화원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2002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책해 주셨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해 현재 세계각국은 자국문화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거점지역에 독립청사로 된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자국문화의 현지 진출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외문화원을 독립청사로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일본 동경에 있는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참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독립청사의 신축청사 이전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柄國 委員 장관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 상황을 좀 아셨어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

○鄭柄國 委員 그래서 장관으로 오신 다음에 이 문제의 심각성, 특히 동경문화원 같은 경우는 내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하면서 전진기지나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崔龍圭 위원님께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무총리까지도 앞장서서 해결을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저도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예산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이것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니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의 경우는 신축이고 프랑스는 이전인데 모두 300억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형편이 좋지 않고 특히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내건 국외이건 예산처가 굉장히 신중하다고 할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얼마라도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내에 체육관 하나 더 짓고 문화회관 하나 더 짓고 하는 것은 지역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지역적인 사업, 체육관 하나 반납하고 이것 하지 않는 대신 이것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해서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내야지. 그렇게까지 누차 지난번 국정감사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국무총리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알았다는 등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특혜사업입

니까?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절대절명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다른 부분을 반납하면 되잖아요. 대신 해달라는 의지까지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鄭柄國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건물을 지으려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땅을 누가 싸게 공여한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바가 있었는데 땅 매입부터 알아가지고 우선 시작이 반이니까 최소한도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美卿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지원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보유량을 현재 국민 1인당 0.52권에서 2011년까지 1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예산을 꾸준히 증액시켜 3년전 10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금년에도 6배인 6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해당지역의 핵심적인 지식정보센터로서 또한 문화교육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에서는 내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16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는 현재 82억 5000만 원만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이 추가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공공도서관 확대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봤을 때 95년에 농어촌에 100관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 46관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셈인데 그러면 지금 어떤 수정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것은 저희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도서

관을 농어촌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李美卿 委員 농어촌 말고 도시지역도 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농촌 말고 도시지역에도 750관을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당국의 재정형편상 이 부분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도 도시지역은 상당부분 나아지면서 몇 년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리라고 보는데 농어촌 농특세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100관을 건립하는 데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현재 46관 정도가 설립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60관 정도에서 더 이상 진척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수정계획을 하나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그래서 지금 수정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을 100관이면 100관, 700관이면 700관 이렇게 하면 확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서구입비용도 같이 증액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렇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리고 그 모습도 그냥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센터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도서관정보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00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미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1단계 사업이 올해 4년까지입니다. 2004년까지 완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농특회계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제가 볼 때 농특회계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도서관 도서구입 부분은 조금 증액해도 예산처가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예,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과 辛基南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어가 중요함에도 국어연구원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순수연구분야에 편성된 예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辛基南 위원님께서서는 한글날 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국어연구원의 순수연구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금년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약 14억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에 책정된 예산은 약 38억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입니다. 우리 부는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식 거행과 더불어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세종문화상 시상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사와 같이 행사가 좀 왜소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귀감으로 삼아서 짜임새 있고 한글을 선양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글날 제정 또는 한글날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자료로 문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38억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더 소상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글날 행사때 과거보다 행사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론의 취재도 훨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글날이 당장 국경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 여러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릴 수 있는 문화적 사업 공모도 받고 많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 교육부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날은 한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학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문화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그리고 장관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홍보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정이 되도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장관께서도 답변을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해주시고 지금도 적극 협조해 주시지만 불필요한 추가질의라든지 보충질의는 조금씩 삼가 주시면 좀더 신속히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다음은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께서 외래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안내소, 콘텐츠 등 관광안내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는 편리하고 알차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체계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관광지도, 관광안내 홍보물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 키오스크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연구는 그것을 실용화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안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지금 말씀해 주신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키오스크는 내년 1월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李美卿 委員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으니 관광공사에서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님께서 유물구입 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구입유물의 문화재 지정건수가 미미하고 지방박물관에 방치된 소산 유물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내년도 유물구입예산은 50억

원으로 금년 30억 원 대비 약 66.7%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30억 원의 예산으로 2090점의 유물을 구입했고 구입유물중 문화재 가치가 높은 5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물구입 예산도 증액된 만큼 앞으로 수준 높은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0점 중에서 5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점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지방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산유물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앙의 소장유물 중 활용빈도가 낮은 5만 3000여 점을 선정해서 지방박물관에 분산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00년 전국 소산유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이중 보존상태가 열악한 6000여 점을 인수해서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고 소산유물 보존처리를 포함해서 보존처리 예산으로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용산 새 박물관이 개관되면 소산유물 전량을 회수해서 유물의 안전관리와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저도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자제하면서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장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부처업무를 세세한 데까지 다 챙기시지 못하시니까 밑의 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장관님께 보고자료를 드릴 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산유물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립박물관 쪽에서 답변을 할 때 소산유물로 분류되어 있는 5만 점이 전시활용 빈도가 낮은 유물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초에 소산계획을 세웠을 당시 처음 나온 보고서에 보면 중요도가 높은 문화재를 전시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고 나도 카피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장관님께 이런 식으로 보고드리면 상황 파악하는 데 혼란이 옵니다. 애초에 소산유물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자체가 전시를 대비한 주요유물을 국가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으로 소산계획을 만들어 냈고 지금 관리소홀을 질타하니깐 소산유

물이라는 것이 별로 전시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유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이 부분도 장관님께 정확하게 실무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鄭範九 위원님께서 애니메이션산업관련 내년 예산이 시설확충,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서 창작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지원예산이 극히 미약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분야의 지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하드웨어나 행사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제작기반 시설의 필요성과 함께 애니메이션 종사자 격려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니메이션 부문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 시제품 제작, 사후유통과 배급을 위한 지원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은 전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한 저리용자 확대를 통해서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姜申星一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鄭柄國 위원님……

○鄭柄國 委員 제 것은 언론세무조사 관련은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답일테니까 생략해 주시고 KOC부위원장직 임명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대신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외홍보문화원은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뿐만 아니라 유교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챙겨보셨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하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제가 현지는 못 가보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웃라인은 제가……

○鄭柄國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 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

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사업실효성이 그러한 사업을 통한 관광지 개발은 내국인으로부터조차도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다산초당 옆에 다산 유물전시관을 약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있는데다가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물품이 전혀 유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복사품만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밀비제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남해안관광지 그러면 남해안 어느 지역치고 충무공 이순신장군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전부 충무공과 관련된 전시관을 짓는 것이예요.

또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공룡유적지가 처음에 해남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전남대학교 모 교수가 학술조사 과정 속에서 발굴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발굴한 교수하고 지자체의 장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 교수가 이랬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 공룡유적지가 해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순천하고 여수에 가서 다시 발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난리 치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올라와서 해남은 해남대로 전시관 짓는다고 그리고 여수는 박물관 짓는다고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또 다른 전시관을 짓는다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전시될 것이 발자국 외에 다른 유물이라든가 화석이라든가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50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전시할 것입니까 했더니 사오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마을에 가 보았는데 전통마을에 전통가옥이 한두 가옥 있는 곳에 전통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다 그래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전반적으로 수술을 하도

록…….

○鄭柄國 委員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심성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알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리고 중국관광객과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전부 다 보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정되도록…….

○鄭柄國 委員 맨 날 국정감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애를 써서 피차간에 감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된 다라고 하면…….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여기 우리 문화관광부…….

○鄭柄國 委員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그러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관광국장입니다.

몇 가지 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관광벨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관광벨트는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조언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동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문제, 그 다음에 다시 또 3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조정할 것이 없겠는가 해 가지고 분기별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저도 현장에 중요한 곳은 다녀왔습니다. 마는 담당과장과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계속해서 의견들을 묻고 전문가들의 뜻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공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 말씀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라도 좋은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테러가 있고 난 다음에도 중국은 계속 늘고 있는 우리의 중요시장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은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들, 대부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됐어요.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鄭柄國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龍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국악강사 풀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악기 및 시청각 교재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악강사 풀제 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국악기 보급 및 시청각 교재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국악 동요, CD, 악보 및 국악기 해설 CD 등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서 초등학교에 배포해 오고 있으며 향후 국악기 보급사업도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악분야 무형문화재 전수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협조를 받아 민족문화의 뿌리인 국악을 학생들이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방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공연장의 음향과 조명, 무대시설 등의 교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공익근무제도를 활용한 문화회관 관리인력 확보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희 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공연예술의 주요 인프라인 지방문화회관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1관의 문화회

관이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부지확보 여부, 사업 진척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대책 등을 종합검토해서 총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지방문화회관의 음향, 조명, 무대시설 등의 교체를 위해서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당국의 방침 상 문화회관의 운영주체인 당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문화회관에 대한 추가지원문제에 대하여는 향후에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회관 관리인력 확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운영은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병역법 제26조에 의거, 경비·감시·행정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병무청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부에서도 필요시에 공익근무요원의 공연장 근무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께서서는…….

○高興吉 委員 하실 필요 없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南宮鎮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委員長 崔在昇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沈揆喆 위원님, 되셨지요?

○沈揆喆 委員 됐어요.

○委員長 崔在昇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朴鍾雄 위원, 鄭範九 위원, 鄭東采 위원, 玄敬大 위원, 尹鐵相 위원, 崔龍圭 위원, 高興吉 위원, 沈載權 위원, 姜成求 위원, 沈揆喆 위원, 金一潤 위원, 崔在昇 위원, 申榮均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문화관광부소관과 2002년도 문화관광부소관 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문화관광부소관 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 6시에 국정홍보처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在昇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02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국정홍보처장 朴峻瑩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崔在昇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게임이 열리고 2003년은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목전에 둔 해로서 그 어느해보다 국내·외 홍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 자신감과 활력을 북돋우는 것도 주요한 국정홍보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는 이러한 홍보환경을 감안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크게 네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국민 여론수렴을 확대하고 국정에 대한 국

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정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전자홍보 기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게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해외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넷째,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부응해서 KTV에서 새로 실시하는 위성방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국내·외 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2002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계기준으로 180억 2104만 원이고 정부내부 수입금 등을 제외한 순계기준은 12억 583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순계기준으로 3억 28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과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영업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계기준으로 653억 3631만 원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출금 등 168억 1521만 원을 제외하면 순계기준으로는 485억 211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액과 함께 국가주요시책 광고비가 증액되었고 KTV 위성방송 공공채널 운영비가 신규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 국정홍보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은 홍보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圭錫 차장입니다.

俞載雄 홍보기획국장입니다.

權寧厚 국정홍보국장입니다.

高昇羽 분석국장입니다.

金命植 해외홍보원장입니다.

高錫晩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입니다.

成彰基 해외홍보원 외신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전 10시부터 대단히 오랜 시간 국정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지난번 국정감사 때와 중복되지 않는 핵심사항, 예산안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俞載雄 홍보기획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편성 중점에 대해서는 앞서 국정홍보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합계기준으로 180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내부 수입 등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는 1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합계기준으로는 653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責特會計 전출금 등 중복계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는 48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1억 7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외공관 일상경비 집행잔액 등 경상이전수입이 1500만 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2002년도 세입은 178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45억 7700만 원보다 33억 2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부내부 수입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이 19억 6800만 원 증액되

었고 감가상각비 전입금 10억 6600만 원이 신규계상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2억 8800만 원, 사업비가 54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적이고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소관별 예산규모 내에서 중앙관서장 책임 하에 자율편성,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처의 내년도 기본사업비는 144억 9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41억 37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비율로는 2.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총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국가주요시책 홍보비가 90억으로 금년 대비 20억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 홍보사업비인 국정홍보종합시스템 운영비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3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설치 운영비는 24억 6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가이미지제고 홍보비는 9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인 korea.net 운영비는 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6600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책특회계 전출금은 157억 4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6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KTV 케이블방송 운영비로 64억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3억 증가했습니다.

KTV 위성방송 운영비로 11억 25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KTV 방송장비 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한 9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부기관 의뢰 영상제작 지원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밖에 국정자료집 발간비로 4억이 계상되었고 연금 등 국가부담금으로 4억,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이익으로 10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사업비 성격과 규모 산출내역 등은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주요시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70억에서 90억으로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주요시책 광고비가 82억으로 금년도 62억보다 20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홍보컨설팅 운영과 월간만화잡지의 발간비는 금년과 동일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국정홍보종합시스템 운영비로 금년도 1억 73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이버대변인 운영 및 포털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자홍보 운영실태 평가비로 6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문화홍보원 설치 운영비는 금년도 20억 6800만 원에서 24억 6800만 원으로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경상운영 및 사업비 중 현지사 업비가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비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기사항은 해외방송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자연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 방영하는 그런 예산이 2억 7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로,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인 korea.net 운영비가 금년 6억 300만 원에서 6억 69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 운영비가 5억 6900만 원이고 외국 인터넷 사이트 오류 시정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인터넷 오류 시정 사업비 1억은 새해 들어 처음 공식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로, KTV 공공채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수 케이블TV 운영비는 금년도 61억 700만 원에서 새해에는 64억 7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비가 52억 4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억 증가했습니다.

위성방송 운영비로 11억 2500만 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무궁화위성 1개 채널 사용료와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장비 관리비는 9억 6900만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외부기관 의뢰 영상제작 지원예산은 금년도 1억 23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으로 5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국정자료집 발간비가 4억 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 정부가 끝날 때마다 정부 기록을 종합정리하는 기록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成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成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국정홍보처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2억 6000만 원으로 금년 9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85억 원으로 금년 425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총 289억 9000만 원은 금년 245억 2000만 원 대비 4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가주요시책 홍보, 국정종합홍보시스템 운영, 문화홍보원 설치운영, 국가 이미지 제고홍보, 대외홍보 korea.net운영, 책특회계전출금 등입니다.

2002년도 국정홍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신규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국정홍보처의 사업의지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은 국정홍보처의 핵심사업으로 주요시책광고, 민간컨설팅운영, 만화잡지 발간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총 90억 원은 금년 7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월드컵국제축구대회 및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 홍보 및 일부매체의 광고단가 현실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국가주요시책광고비 82억 원의 예산편성

은 신문·방송 등 매체별로 편성되어 있어 환경보호·복지 등 구체적인 국정홍보 목표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로 목표중심의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한편, 1999년·2000년·2001년도의 경우 TV일반광고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등 이 같은 사항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참고로 96년도의 국가시책광고비 8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만화잡지발간사업의 경우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 없이 국가주요시책광고비 예산으로 2월 호부터 7월 7만 부씩 발간하다가 9월 호부터는 10만 부씩 발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5억 원에 3만 5000부 발간예정이었으나 10만 부를 발간하고 있는 9월말 현재 집행액이 5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초과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2년도에도 실제 집행단계에서 올해 수준으로 발간한다고 하더라도 부족금이 발생하여 타 사업비에서 충당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재외 문화홍보원 운영비는 24억 7000만 원으로 금년 20억 7000만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히 현지사업비 5억 원은 금년 2억 7000만 원 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총 운영비 중 점유율 20.1%는 문화관광부 재외 문화홍보원 현지사업비의 점유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재외 문화홍보원별 1개처 당 현지사업비는 월 700만 원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홍보처 소관 재외 문화홍보원별 1개처 당 4억 1000만 원은 문화관광부 소관 1개처 당 12억 4만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부처간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홍보 Korea.net운영비 6억 7000만 원은 금년 6억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외국 인터넷사이트 한국 오류 시정사업 1억 원이 순증된 것에 기인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한국관련 오류시정을 요구한 789건 중 174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22.1%로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2002년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총규모를 보면 예산안은 168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145억 7000만 원 대비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중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85억 원으로 금년 67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KTV위성방송 공공채널 운영비 11억 원 및 국정자료집 발간비 4억 원이며 주요계속사업은 KTV 케이블방송 공공채널 운영, 국가부담금, 영상제작 지원 등입니다.

먼저 KTV 케이블방송운영비 64억 원은 금년도 61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비 52억 5000만 원은 금년 48억 2000만 원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프로그램제작편수는 2001년도 1582편에서 2002년도에는 327편이 늘어난 1909편으로 프로그램제작편수의 증가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예산증가를 훨씬 앞선 프로그램의 증편은 자칫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한 질 높은 프로그램제작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로 반영된 KTV위성방송 운영비는 11억 원으로 위성사용료 8억 원과 전송료 3억 원인바 KTV위성방송 실시는 국내는 물론 중국서북, 연해주, 일본, 동남아 일부 등 가시청권의 확대 및 기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과 장비를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반영된 국정자료집 발간비는 4억 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국정실적을 각 분야별로 정리, 객관적인 종합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정부기록으로 보존·활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4권, 각 권 5000부를 발간하여 2003년 초에 국가기관, 국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대정부의 국정실적을 분야별로 정리·보존·활용하기 위해 역대정부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자료집에 대한 CD 및 DB화로 자료보존 및 활용에 효율화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揆喆 委員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짧

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쓴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 라는 저서에 朴峻瑩 홍보처장의 이름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朴峻瑩 국내언론비서관은 80년 중앙일보 해직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朴智元 공보수석을 통해서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여론과 한겨레신문과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내부의 목소리를 수도 없이 DJ에게 보고서로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朴智元 공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또 당시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여론과 언론계 내부의 목소리가 최근 언론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계의 소리와 다른 내용이었는지, 같은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시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처장의 언론관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는지 그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중앙일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이던 처장은 언론탄압이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중앙일보측의 여러 협상제의를 거부한데서도 알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洪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모든 경영진과 인사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중앙일보측의 타협제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국감에서도 처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 정부와 언론의 타협을 묻는 위원의 질의에 모 신문사 회장이 국세청장과 만났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장은 금년 9월 홍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98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또 99년 5월부터는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있으면서 행정권의 언론정책과 언론통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처장이 생각하는 언론이라는 것은 정권과 타협이나 제기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해 운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행동이 필요한 대상이고, 따라서 언론개혁은 깡패방식이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언론탄압은 처장의 그런 언론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

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인용한 기자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2001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 한 청와대 수석 이렇게 표현해 놓고서 우리가 언론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조선, 동아, 중앙은 길길이 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겨레가 줄기차게 요구한 언론개혁을 곧 시작한다, 기사를 미리 쓰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처장의 언론관이나 청와대 재직시절 한겨레와 시민단체 등의 언론개혁요구를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것으로만 보아도 그 발언의 주인공은 혹시 처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반박성명을 많이 냈고 또 비판적 언론을 상대로 반론보도청구권도 많이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간지 기자의 저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처가 종래의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V 위성방송 공공채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위성방송은 결국 케이블방송, 종래 그 KTV 케이블방송을 그대로 위성으로 쏘 올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겠다는 건지, 지금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성방송의 시청목표지로 중국 연해주, 일본지역 등에 거주하는 해외교포와 북한지역을 가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서 국내 위성방송 시청을 위해서 셋톱박스를 구입할 가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해서 지금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와대가요, 지금 통치사료비서관실을 뒤 가지고 지금 통치사료를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정홍보처가 발간하고자 하는 국정자료집이라는 것이

청와대가 하고 있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기록·보존하고자 하는 통치사료비서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뭐가 다른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통치사료비서관실이 상당히 방대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통치사료비서관실의 그 업무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떠한 취지에서 하시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2001년 10월 현재까지의 집행현황을 보면, 14억 26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된 신문광고의 경우 9월까지 전혀 예산집행이 없다가 10월 재·보궐선거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16개 중앙일간지와 21개 지방지에 내수경기 진작, 중시활성화, 고용안정 지원, 한국인은 위기에 강합니다, 이런 내용의 일종의 정권홍보에 가까운 광고를 내서 선거를 의식한 광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안 하던 이런 광고를 재·보궐선거 기간이 임박해서 했다는 것은 이러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방송매체광고예산의 경우 TV일반광고예산은 매년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보다도 오히려 175% 증가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매년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괴리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 그 이유도 밝혀 주시고요. 금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정신함양 사업 예산은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도 몇 번 문제삼았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예산심의를 그 전액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 살아났어요. 그래 이것은 금년에 또 다시 예산을 10억 2300만 원 편성해 왔습니다. 본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회 스스로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이러한 국정홍보처의 행위를 위원회 스스로가 추인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임위 스스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여서 참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李美卿 委員 예, 국정홍보처의 예산이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듯이 상당히 일반적인 예년의 증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정홍보처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국가이미지 제고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문화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이미지 홍보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평가를 본다면 서구에서는 인도나 중국에 대한 평가가 일본보다 높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낙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등 정신문화와 유구한 전통문화에 대한 매력이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일본에 대해서 보다는 더 색깔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을 통해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10월 29일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보고 저는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한국의 빨리빨리라는 특유의 문화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성장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다 하는 것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지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가입자가 일본이 33만이고 미국이 600만인데 한국이 400만이니 인구대비로 본다면 한국이 세계 제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터넷사용자 전체로 보면 1600만 명이기에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숫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대폰메이커 노키아의 부사장은 한국이 2~3년만에 휴대폰보급률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등 통신시장의 리더마켓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빨리빨리 하는 한국문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극복함과 아울러서 신형 IT강국으로서의 이미지홍보에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까지도 낙후한 농업국가, 전쟁을 겪고 냉전시대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자 그리고 아일랜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80년대 후반까지도 낙후한 농업국가였는데 90년대에는 IT집중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한글을 알리고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한국, IT강국 그리고 냉전 국가가 아니고 앞으로 평화를 개척해 나가는 한국 이런 이미지를 더 크게 부각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 국가이미지제고사업이 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 지원이 보다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생각해온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가 이미지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물론 예산도 지금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지만 상당히 평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개를 하는 공연단을 파견한다든지 순회영화제를 한다든지 한국 이미지 CD롬을 제작한다 사진전을 한다 이런 정도의 늘상 생각할 수 있는 분야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적인 것을 극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대회 홍보를 위한 어떤 방식을 동원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崔龍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龍圭 委員 예산안 소위 시간에 충분히 묻기로 하고 간략히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가이미지 홍보예산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02년 월드컵, 부산아시아게임 등 국제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그런데 국가이미지 홍보예산내역을 보면 과거 3년 동안 전혀 증액되지 않고 거의 동일한 액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향상사업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있는 것을 제대로 기회로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부터 내리 3년간 동일한 예산규모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략도 없고 단지 관행에 따른 짜맞추기 예산 편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 편성의 원칙은 무엇이고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대상국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조사결과를 국가이미지 제고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여타 해외홍보문제나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委員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朴 처장 이 책 읽어 보셨습니까?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高興吉 委員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책은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에 이 책에 유일하게 朴 처장이 실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朴 처장으로 생각이 되는 대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요지를 설명 올리자면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이제까지 언론사세무조사가 정도세정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이나 또는 기타 장관님들이나 청와대 참모들 특히 공보수석을 했던 朴 처장의 설명이 허위가 되고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정부 대변인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沈揆喆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정홍보처가 각 도 하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실 것으

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10월 16일부터 18일 사흘에 걸쳐서 전국의 37개 일간지에 약 7억 3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10월 25일이 보궐 선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국정홍보처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에서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대변인이 성명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경기 악화에 대비한 정부시책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지 정권 홍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고 이러한 식의 홍보를 하게 되면 내년 12월 12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에서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정권홍보비를 그대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국정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국정홍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沈揆 委員님께서 모 일간지 기사내용 중에 당시 국내언론비서관이었던 본인이 朴智元 공보수석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 언론개혁 목소리의 보고서를 대통령께 수도 없이 올렸다는 내용에 관해서 보고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시민단체나 언론계의 목소리가 최근 언론상황의 목소리와 다른 내용이었는지 당시 보고내용은 처장의 언론관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99년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중앙일보하고 일괄해서 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올 1월 28일 6면에 며칠 동안 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반론문 형태로 해서 언론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기고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때도 이 내용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후에 여러 단체에서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 기억에 수십 건인데 이것을 아주 짧게 해서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하는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통령께서 “그런 소리가 있는 것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언론자율로 해야 된다. 언론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다 하면 언론이 스스로 하게 될 것 아니냐” 이같은 말씀을 4월 6일, 바로 그해입니다. 그해 4월 6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 가운데 제가 자세히 안 보았습니다마는 수도 없이 올렸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한 번 그렇게 올린 후 언론개혁은 그 요구는 있지만 언론계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4월 6일 말씀하셨지만 그후로도 반복적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참모들은 대통령의 철학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좌를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시민단체나 언론계의 목소리가 최근 상황에서의 목소리와 다른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 보고내용이 제 언론관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제 언론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으면 여론을 과감하게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초기에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沈揆 委員 그 당시 대통령께 올린 보고서에서 “언론개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언론의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자는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시민단체나 학계도 그렇고 언론계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안이었는데 그때는 돌아보면 나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IMF로 해서 2월 25일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3세계 경제로 주저앉을 것인지 나라가 참으로 앞길이 캄캄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개혁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이 바로 서도록 하고 개혁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국정 여러 곳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언론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중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주장과 그때 나타나는 주장을 제가 일일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沈揆喆 委員 지금 나타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확인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이, 언론과 관련된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지난번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한 세미나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또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행동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른바 비판언론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 구체적으로 조·중·동 같은 것들을 지목하면서 깡패방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언론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소리였느냐?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沈揆喆 委員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예,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깡패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을……

○沈揆喆 委員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 어떤 각론도 없이 그냥 막연히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의 이러이러한 점이 좀 개혁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안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건의를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은 중복이 되고 어떤 것은…… 전부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沈揆喆 委員 어떤 말씀이지요?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그 내용은 언론개혁에 대

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고 필요하다는 언론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리고 4월 6일 신문의 날 가서서 그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때 굉장히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대개 그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똑같이 오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沈 위원님께서서는 두 번째 질의에서 지금 총력투쟁을 전개해서 언론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언론관이 저의 언론관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론과 총력투쟁을 한 다든가 이런 용어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여론이고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려면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언론개혁도 언론자유에 맡겨야 된다는 소신에는 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沈 위원님께서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책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책 내용은 저도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진위여부를, 또 전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의견들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저는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데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자 본인이 해석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위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적 대응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沈 위원님께서 KTV의 케이블과 위성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성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청자를 중국 일본 이런 데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수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저도 沈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KTV는 지금 위성방송을 시작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시작을 해서 다양한 시청자에 접근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와 여러 공중들이 대한

민국의 성원으로서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 자긍심과 의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국정과 여러 중요한 사회의 이슈들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희도 프로그램 제작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KTV가 책임경영제로 되면서 대단히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혜롭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揆結 委員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정부나 국가의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위성방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 아리랑 TV가 되어 있거든요. 아리랑 TV가 세계의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를 4등분해서 3등분까지 커버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는 광범위한 범위의 가청권을 두고 있는 아리랑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만 따지지 말고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위성방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리랑 TV를 활용하시고 문자 그대로 KTV는 케이블 방송으로 출발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면 어떻겠느냐, 따로 위성방송 채널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제작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KTV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시 위성에 쏘아리겠다는 뜻인데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 방송중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아리랑 TV를 활용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케이블방송이 책임경영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케이블방송 예산 중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액은 극히 일부잖아요?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케이블 방송은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회방송에 충실하면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이의를 안 달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 활동을 가감없이 중계하는 이 프로그램을

원하거든요. 이렇게 국회 활동을 충실하게 보도하는 어느 채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KTV가 그 기능에 좀 충실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시간에 국정홍보를 위한 이런 방송도 하시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시면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번 답변을 들어보면 국회라는 것이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차질이 많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술껏 연구하셔야지요. 국회라는 것이 당장 오늘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가 못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방송은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또 국회방송을 위해서 위성방송을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간행물소장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선 아리랑 TV의 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해외 국가이미지 관련해서 보면 아리랑 TV하고 KTV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리랑 TV는 어떤데간에 출범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상당히 국가의 수출이나 문화소개나 이것이 오대양 육대주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그 방송에 광고를 하겠다는 수출무역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그것이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대외적인 국가이미지의 채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KTV는 우선 우리 沈揆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회가 민의의 대변의 장이고 또 많은 국정현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최소한다는 못 보더라도 국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 채널을 봄으로서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취임하자마자 '왜 국회를 6시 이후에 편성을 하느냐?' 그랬더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불규칙해서 오히려 그 시간에 국회를 종합을 해서 보도를 해주는 것이 국민들이 항상 예상하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지혜를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沈揆喆 위원님, 더 있습니까? 李美卿 위원 답변부터 간단히 듣고 또 답변을 들도록 하시지요.

○沈揆喆 委員 예.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또 차제에 우리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장점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국제대회 행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 평면적인 사업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이 뭐냐는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李 위원님 말씀과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근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극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약 3년 내에 정보화전략을 충실히 수행한 정보화 강국으로 또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후에 우리 국가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한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해외를 가면 해외투자유치를 권유할 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마는 실지 이것을 국가홍보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특히 말씀드렸던 정보화, 민주 인권국가로서의 향상, IMF를 극복한 한국민의 저력, 어느 때보다도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을 시켰고 남북대화가 어떻든 진척이 되고, 요즘은 좀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 국민의 자신감과 연결시키도록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아이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마는 체계적으로 하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제 생각에는 국가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부각하고자 했던 것은 IT강국을 부각하고 싶었는데 'IMF를 겪었는데도 IT에서 세계 1위구나'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보면 I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제가 아까도 문화관광부에게 '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IT하고 연결시키는 실용화방안을 별로 안 만드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연관시키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생각은 같은데 방법에 있어서 너무 여러 가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리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이 계획을 상반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면서 하는데 李美卿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정보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상세히 해주시고요. 처장께서도 굉장히 답변이 김니다. 좀 짧게 해주시고 우리 沈揆喆 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께서 우리 국정자료집과 관련해서 청와대 통치사료비서실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청와대 통치사료비서실에서는 지금 金大中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들 기록을 전부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어떤 주제보다도 계속되는 일정 등 하나의 사초 비슷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全斗煥 대통령님 때부터 이것을 발간해 왔습니다. 다마는 그 대통령님 재임시절에 이 정부가 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후세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개 임기가 거의 끝나실 시점에 이것을 발행을 해서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하면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沈揆喆 委員 全斗煥 대통령 때부터 꼭 하실 계획이십니까?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그렇게 해 왔습니다.

全斗煥 대통령 때도 끝나실 때 하셨고 盧泰愚 대통령님 임기 말에도 하셨고 그런데 대개 이것이 선거가 끝난 후에 그렇게 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沈揆喆 委員 그러면 통치사료비서관실에서는 사초 비슷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컨대 이제 옛날 같으면 사초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초를 모았다가 사후에 이제 실록을 편찬하지 않습니까?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예.

○沈揆喆 委員 통치사료비서관실도 그런 식으로 사초를 모아서 결국은 이런 국정자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내는 것 아닙니까?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그대로 기록을 해 두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일정 중심으로 그렇게 쪽 정리를 해 놓는 그런 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沈 위원님께서서는 또 국가 주요시책 광고 예산이 편성과 집행 상의 괴리가 있고 이런 것이 또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광고예산이 어떤 매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다, 목적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저는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우선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沈 위원님이 직접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상업광고로 되어 있는 것과 협찬광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집행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은 협찬광고가 단가가 굉장히 싸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15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빈도 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협찬광고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 예산부터 이것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약간 저희들이 수정을 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沈 위원님께서서는 또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한마디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해서 모든 국민이 우리가 일류국가 시민이 되자 이런 캠페인성의 지원으로서 이것이 사실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이고, 어느 정부에서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차별화하고 앞으로 더 효율성 있

게 특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께서서는 모 일간지의 책과 관련해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책 내용을 꼼꼼히 검토를 하면서 살펴볼 수 없었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지금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앞부분과 중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월 16일 광고에 대해서…….

○高興吉 委員 그것,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예,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國政弘報處長 朴峻瑩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정홍보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沈載權 위원, 金一潤 위원, 鄭鎭碩 위원, 姜成求 위원, 鄭東采 위원, 南景弼 위원, 尹鐵相 위원, 高興吉 위원, 沈揆喆 위원, 玄敬大 위원, 朴鍾雄 위원, 鄭柄國 위원, 鄭範九 위원, 李美卿 위원, 崔在昇 위원, 崔龍圭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국정홍보처소관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홍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

재청소관 및 방송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出席委員(17人)

姜成求 姜申星一 高興吉 南景弼
朴鍾雄 辛基南 沈揆喆 沈載權
尹鐵相 李美卿 鄭東采 鄭範九
鄭柄國 鄭鎮碩 崔龍圭 崔在昇
玄敬大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千浩仙
전문위원 金成坤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관 南宮鎮
차관 尹迥奎
차관보 李弘錫
기획관리실장 吳志哲
종무실장 朴紋奭
문화정책국장 尹淸夏
예술국장 金長實
문화산업국장 劉震龍
관광국장 朴良雨
체육국장 鄭泰煥
청소년국장 金斗顯
공보관 權慶相
예술종합학교총장 李康淑
국립중앙박물관장 池健吉
국립중앙도서관장 申鉉澤
국립중앙극장장 金明坤
국립현대미술관장 吳光洙
국립민속박물관장 李鐘哲
예술원사무국장 吳鉉宰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 李成元
국정홍보처
처장 朴峻瑩
차장 李圭錫
홍보기획국장 李載雄
국정홍보국장 權寧厚
분석국장 高昇羽
해외홍보원장 金命植
해외홍보원외신협력관 成彰基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 高錫晚

○其他參席者

한국관광공사사장 趙洪奎
독립기념관장 李文遠
영화진흥위원장 柳吉村
예술의전당사장 金順珪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尹亮重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 李吉隆
대한체육회사무총장 金鳳燮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金聖坤

【報告事項】

○議案回附

2002년도예산안

(9월28일 정부 제출)

9월28일자 회부됨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조희욱 의원 대표발의)

(10월5일 조희욱·정우택·송광호·이재정·김중호·이양희·장태완·조용규·신영균·김호일·조부영·강창희·원철희·이재선·신현태·오장섭·강성구·김택기·김학원·김진재·정진석·이완구·안대륜·함석재·심규철·황승민·정인봉·이인기·송석찬·현경대·박근혜·원유철·서청원·강숙자·박광태·김방림·김태식·이상희·김경천·박세환·김효석·하순봉·박상규·김성순·김학송·윤영탁·김윤식·윤여준·배기운·김영춘·심재철·추미애·서상섭·박주선·박종희·김영배·정병국·임인배·이정일·허운나·박혁규·김태호·이원성·이원형·유용태·유재규·이미경·최용규·최재승·신기남·윤철상·박종용·심재권·김용균·정동채·김영환·이주영 의원 외 20인 발의)

10월5일자 회부됨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강성구 의원 발의)

(10월9일 강성구 의원 외 19인 발의)

10월10일자 회부됨.

언론탄압중단및구속언론인석방촉구결의안

(10월11일 박종용·강신성일·고홍길·김일윤·남경필·신영균·심규철·정병국·정진석·현경대·강삼재·권기술·권오을·권철현·권태망·김광원·김동욱·김무성·김용갑·김용균·김용학·김정숙·김종필·김진재·김학송·김학원·나오연·도종이·민봉기·박명환·박승국·박종근·박종희·서정화·신현태·심재철·안택수·오세훈·윤경식·윤두

환 · 이성현 · 이원형 · 이운성 · 이인기 · 이주영 · 이해봉 · 전재희 · 정의화 · 정인봉 · 정창화 · 정형근 · 최연희 · 하순봉 · 허태열 · 홍사덕 · 황우여 의원 발의)

10월11일자 회부됨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정병국 · 이성현 · 황승민 · 최용규 · 박병석 · 심재철 · 이방호 · 고흥길 · 이인기 · 이원형 · 박혁규 · 정인봉 · 김홍신 · 박시균 · 김영춘 · 윤여준 · 김찬우 · 도종이 · 박승국 · 신현태 · 윤두환 · 이종걸 · 심규철 · 김학송 · 현경대 · 김일운 · 박종용 · 강재섭 · 유재규 · 오세훈 · 허태열 · 정재문 · 남경필 · 이주영 · 강신성 일 의원 발의)

10월18일자 회부됨

공연법중개정법률안

(10월19일 정부 제출)

10월20일자 회부됨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0월29일 심재권 · 김호일 · 조용규 · 정우택 · 김원웅 · 장태완 · 안상수 · 김용학 · 추미애 · 오세훈 · 심규섭 · 김근태 · 신계륜 · 현경대 · 김덕규 · 김영진 · 이주영 · 김희선 · 고흥길 · 정의화 · 이해봉 · 권기술 · 황승민 · 이창복 · 이재정 · 김락기 · 임태희 · 조배숙 · 이근진 · 송석찬 · 박명환 의원 발의)

10월30일자 회부됨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발의)

(10월16일 목요상 의원 외 40인 발의)

10월17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 請願回附

어린이텔레비전법제정에관한청원

(2001년10월18일 서울 종로구 평동 27-9 (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으로부터 李美卿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0월19일자 회부됨